

## 보도자료

2013. 12. 4.(수) 12: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 2013. 12. 4.(수) 09:30

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

담당자 과 장 : 윤명준 (042.481.2233)  
사무관 : 황해범 (042.481.2237)

# 2013년 사회조사 결과

(복지 · 사회참여 · 문화와 여가 · 소득과 소비 · 노동)

- 사회조사는 총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※ 2014년 조사 예정 부문 : 가족 · 교육 · 보건 · 안전 · 환경

- 사회조사 자료는 복지 · 사회참여 · 문화와 여가 · 소득과 소비 · 노동 부문에 대하여 전국의 17,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(약 38,000명)을 대상으로 2013. 5. 11.~5. 26.(16일) 동안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입니다.

##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

- 사회조사는 총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- 이 자료는 복지·사회참여·문화와 여가·소득과 소비·노동부문에 대하여 전국 17,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,000명을 대상으로 2013. 5. 11. ~ 5. 26.(16일)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
-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(시점), 조사대상 연령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

### 【조사대상 기간】

- 조사대상 기간(시점)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3. 5. 11. 현재임
  - 「지난 1년」은 2012. 5. 11. ~ 2013. 5. 10. 동안임
  - 「지난 1개월」은 2013. 4. 11. ~ 2013. 5. 10. 동안임
  - 「지난 1주일」은 2013. 5. 4. ~ 2013. 5. 10. 동안임

### 【조사대상 연령】

- 조사대상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13세 이상 인구임
  - 소득과 소비부문, 생활여건의 변화, 노후 준비방법 등은 만 19세 이상임
  -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만 29세 이하임
  - 노인복지부문은 만 60세 이상임

- 사회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, 조사방법,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
-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
- 지역(시·도)별 자료 등 상세한 분석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[www.kosis.kr](http://www.kosis.kr))을 통해 제공함



# 차 례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□ 2013년 사회조사 주요특징 .....                   | 4  |
| □ 2013년 사회조사 결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I . 복 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1. 생활여건의 변화 (19세 이상) .....                | 7  |
| 2.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(19세 이상 가구주) .....     | 8  |
| 3.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.....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.....                   | 10 |
| 5.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.....                    | 11 |
| 6. 장애인에 대한 견해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7.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.....              | 13 |
| 8.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.....                   | 14 |
| 9. 노후 준비방법 (19세 이상 가구주) .....             | 15 |
| 10.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(60세 이상) .....          | 16 |
| 11. 생활비 마련방법 (60세 이상) .....               | 17 |
| 12.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(60세 이상) .....      | 18 |
| 13.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 (60세 이상) ..... | 19 |
| 14.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(60세 이상) .....            | 20 |
| 15. 선호 장례방법 (19세 이상) .....                | 21 |
| II . 사회참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16. 사회적 관계망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17. 단체 참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 |
| 18. 기부 경험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 |
| 19. 기부하지 않은 이유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20. 기부 경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 |
| 21. 기부 횟수 및 금액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7 |
| 22. 향후 기부 의향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8 |
| 23. 기부 문화 확산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9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4.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.....            | 30 |
| 25.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.....            | 31 |
| 26.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.....           | 32 |
| 27.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.....        | 33 |
| 28. 계층의식 (가구주) .....             | 34 |
| 29. 본인세대 및 다음세대 계층이동 (가구주) ..... | 35 |

### Ⅲ. 문화와 여가 ....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30. 신문 인구 .....                   | 36 |
| 31. 독서 인구 .....                   | 37 |
| 32. 레저시설 이용 인구 .....              | 38 |
| 33.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.....           | 39 |
| 34.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.....           | 40 |
| 35.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..... | 41 |
| 36.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.....          | 42 |
| 37.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.....     | 43 |
| 38. 국내 관광여행 비율 및 횟수 .....         | 44 |
| 39.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.....            | 45 |

### Ⅳ. 소득과 소비 ....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0. 소득 만족도 (19세 이상) .....            | 46 |
| 41. 소득과 부채의 변화 (19세 이상 가구주) .....    | 47 |
| 42.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(19세 이상 가구주) .....   | 48 |
| 43. 소비생활 만족도 (19세 이상) .....          | 49 |
| 44.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(19세 이상 가구주) ..... | 50 |

### Ⅴ. 노 동 ....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5. 직업 선택 요인 .....              | 51 |
| 46.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(13~29세) .....  | 52 |
| 47.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.....           | 53 |
| 48. 고용의 안정성 (19세 이상) .....      | 54 |
| 49.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(19세 이상) ..... | 55 |
| 50. 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.....         | 56 |

### Ⅵ. 통계표 .....

## 2013년 사회조사 주요특징

### 복 지

- (생활여건) 과거에 비해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늘고, 나빠졌다는 평가는 줄어
- (사회보험료) 사회보험료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)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
- (공공시설) 전반적으로 「보건의료시설(24.1%)」 확충을 많이 요구
- (복지서비스)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(39.4%)」 확대가 가장 필요
- (장애인 차별)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비율 66.5%
- (장애인에 대한 견해)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비율 65.1%
- (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) 집근처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해 5.8%만 반대
- (장애인 복지사업) 장애인은 「장애수당 지급(41.0%)」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
- (노후 준비) 노후 준비 가구주는 72.9%, 주된 준비방법은 「국민연금(52.5%)」
- (고령자의 어려움)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어려움은 「경제문제」와 「건강」
- (생활비 마련) 고령자들은 주로 「본인 및 배우자 부담(63.6%)」으로 생활비를 마련
- (자녀와 동거 여부)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는 67.8%이고, 주된이유는 「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」
- (자녀와 동거 의향) 60세 이상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향후에는 「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」
- (고령자 복지) 고령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「건강검진」이 30.9%로 가장 많아
- (장례방법) 장례방법은 「화장 후 자연장(45.3%)」을 가장 선호

### 사 회 참 여

- (사회적 관계망) 「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」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경우가 74.7%
- (단체 참여) 「친목 및 사교단체(75.3%)」에 가장 많이 참여

- (기부 경험)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**34.6%**이며, 주로 **현금을 기부**
  - 현금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**32.5%**, 물품을 기부한 사람은 **5.9%**
  -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「**경제적 여유가 없어서**」가 **60.9%**
- (기부 경로) 현금기부는 「**모금단체**」, 물품기부는 「**물품후원단체**」를 주로 이용
- (기부 횟수 및 금액) 현금기부 횟수는 **평균 6.3회**, 물품기부 횟수는 **평균 3.3회**
  - 1인당 현금기부 금액은 **평균 19만 9천 원**
- (향후 기부 의향) 향후 기부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**48.4%**
- (유산 기부)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**35.9%**
- (기부 문화 확산) 「**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**」가 가장 필요
- (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) 자원봉사 참여율은 **19.9%**, 참여자의 연간 평균 참여시간은 **25.1시간**
- (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) 자원봉사는 주로 「**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과 관련 분야(62.4%)**」에서
- (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) 절반 이상이 「**직장·학교(53.1%)**」를 통해 인지
- (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및 분야)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중에는 「**아동학습지도(24.0%)**」가 가장 많아
- (계층의식) 가구주의 **51.4%**가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를 「**중간층**」이라고 생각
  - 상층은 **1.9%**, 하층은 **46.7%**
- (계층이동) 가구주 본인세대의 지위 향상에는 부정적, 자식세대의 지위향상에는 긍정적

## 문화와 여가

- (신문 인구) 신문보는 비율은 **72.6%**, 일반신문(56.4%)보다 인터넷신문(81.5%)이 많아
- (독서 인구) 독서 인구 비율은 **62.4%**, 독서량은 1인당 **17.9권**
- (레저시설) 레저시설 이용 인구는 **71.4%**, 주로 「**관광명소(71.4%)**」를 이용
- (문화예술·스포츠관람) 관람비율은 **63.4%**, 관람횟수는 **평균 8.9회**, 「**영화관람**」이 최다

- (여가활용) 주말·휴일의 여가는 주로 「TV 및 DVD 시청(59.9%)」
- (여가활동 대상) 여가활동 대상은 주로 「가족」
- (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)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「여행」
- (여가활용 만족도) 25.1%가 여가활용에 불만족, 주된 이유는 「경제적 부담(57.7%)」
- (국내여행) 국내 관광여행 경험자는 67.1%, 1인당 3.1회
- (해외여행) 해외여행 경험자는 17.2%, 주된 목적은 「관광」

## 소득과 소비

- (소득 만족도) 본인 소득에 「불만족」인 사람은 49.0%
- (가구소득·부채) 전년보다 가구소득 감소는 26.1%, 가구부채 증가는 24.1%
- (재정상태) 가구주의 23.6%가 내년에는 가구재정이 더 「좋아질 것」으로 생각
- (소비생활 만족도) 현재의 소비생활에 「만족」하는 사람은 13.6%
- (건축소비지출항목)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「외식비」를 먼저 줄여

## 노동

- (직업 선택 요인) 직업 선택은 「수입」, 「안정성」, 「적성·흥미」 순으로
- (선호직장) 청년(13~29세)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「국가기관(28.6%)」
- (여성취업) 직업을 가질 경우, 가정 일에 관계없이 여성취업에 52.1%가 찬성
- (고용안정성) 직업(장)에 대해 59.8%가 불안감을 느끼며,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불안감을 느낌
- (일·가정우선도) 일과 가정생활 중 「일을 우선시 한다(54.9%)」가 더 많아
- (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) 「출산(전후) 휴가제(78.8%)」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, 「가족 돌봄 휴직제(28.7%)」가 가장 낮아

# 2013년 사회조사 결과

## I. 복 지

### 1. 생활여건의 변화 (19세 이상)

과거에 비해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늘고, 나빠졌다는 평가는 줄어

- 과거에 비해 생활여건이 '좋아졌다'고 응답한 비율을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「전반적인 생활여건(30.9→31.0%)」, 「보건의료서비스(39.5→39.3%)」, 「사회보장제도(31.6→32.6%)」, 「문화·여가생활 향유여건(35.1→35.6%)」로 나타났으며,
  - '나빠졌다'고 응답한 비율은 「전반적인 생활여건(29.0→24.1%)」, 「보건의료서비스(10.7→7.3%)」, 「사회보장제도(17.1→13.0%)」, 「문화·여가생활 향유여건(17.9→13.9%)」로 나타남
  - 「문화·여가생활 향유여건」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 농어촌(읍면부)지역이 도시(동부)지역보다 더 '좋아졌다'고 응답함
  - 성별로 보면 '좋아졌다'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

#### < 생활여건의 변화<sup>1)</sup>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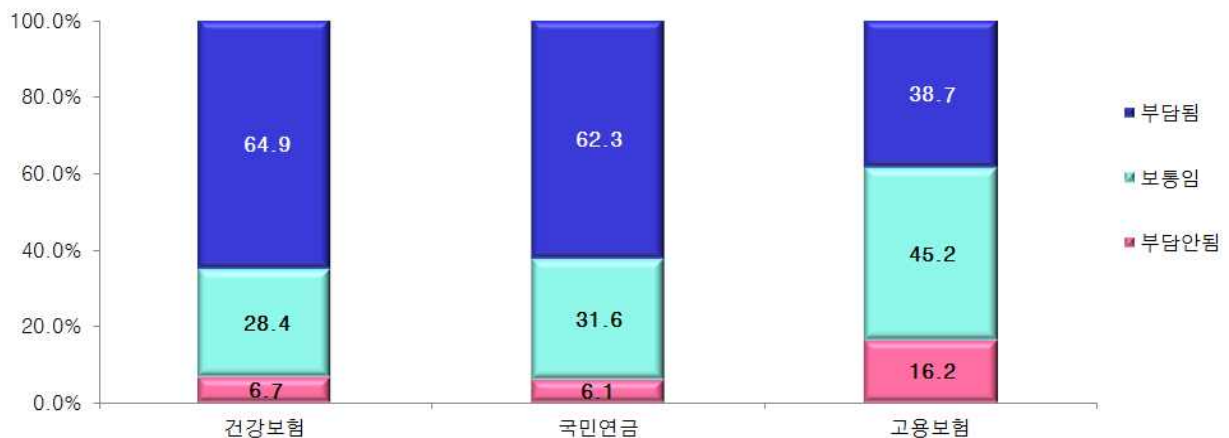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| 계     | 전반적인 생활여건 |       |      | 보건의료서비스 |       |      | 사회보장제도 |       |      | 문화·여가생활 향유여건 |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| 좋아짐       | 변화 없음 | 나빠짐  | 좋아짐     | 변화 없음 | 나빠짐  | 좋아짐    | 변화 없음 | 나빠짐  | 좋아짐          | 변화 없음 | 나빠짐  |
| 2011년       | 100.0 | 30.9      | 40.1  | 29.0 | 39.5    | 49.8  | 10.7 | 31.6   | 51.3  | 17.1 | 35.1         | 46.9  | 17.9 |
| 2013년       | 100.0 | 31.0      | 45.0  | 24.1 | 39.3    | 53.4  | 7.3  | 32.6   | 54.5  | 13.0 | 35.6         | 50.5  | 13.9 |
| 도 시 ( 동 부 ) | 100.0 | 30.5      | 44.8  | 24.7 | 38.3    | 54.2  | 7.5  | 31.8   | 54.8  | 13.5 | 35.8         | 49.7  | 14.5 |
| 농어촌(읍면부)    | 100.0 | 33.0      | 45.9  | 21.1 | 43.9    | 49.8  | 6.3  | 36.3   | 53.1  | 10.6 | 35.1         | 53.8  | 11.1 |
| 남 자         | 100.0 | 30.5      | 44.5  | 25.0 | 37.7    | 54.3  | 8.0  | 31.9   | 53.9  | 14.1 | 34.4         | 50.5  | 15.1 |
| 여 자         | 100.0 | 31.4      | 45.4  | 23.2 | 40.9    | 52.5  | 6.7  | 33.2   | 55.0  | 11.8 | 36.9         | 50.4  | 12.7 |

주 : 1) 3년전과 비교하여

## 2.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(19세 이상 가구주)

### 사회보험료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)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

-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해 「건강보험」은 64.9%, 「국민연금」은 62.3%, 「고용보험」은 38.7%가 ‘부담을 느끼는’ 것으로 나타남
  -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며, 직업별은 ‘서비스판매직’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, 2011년과 비교하면 사회보험료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)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함



### <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(19세 이상 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건강보험 |      |      | 국민연금 |      |      | 고용보험 |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부담됨  | 보통임  | 부담안됨 | 부담됨  | 보통임  | 부담안됨 | 부담됨  | 보통임  | 부담안됨 |
| 2011년    | 100.0           | 68.4 | 26.1 | 5.6  | 65.3 | 28.9 | 5.8  | 42.1 | 43.8 | 14.1 |
| 2013년    | 100.0           | 64.9 | 28.4 | 6.7  | 62.3 | 31.6 | 6.1  | 38.7 | 45.2 | 16.2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          | 65.9 | 28.2 | 5.9  | 63.2 | 31.4 | 5.4  | 39.0 | 45.3 | 15.7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          | 58.9 | 29.5 | 11.6 | 56.3 | 32.9 | 10.8 | 35.8 | 44.1 | 20.1 |
| 전 문 관 리  | 100.0           | 60.8 | 32.4 | 6.8  | 60.4 | 33.0 | 6.5  | 37.8 | 45.9 | 16.3 |
| 사 무      | 100.0           | 59.7 | 33.6 | 6.7  | 60.6 | 32.5 | 6.9  | 34.2 | 47.7 | 18.1 |
| 서비스판매    | 100.0           | 70.1 | 25.4 | 4.6  | 66.2 | 28.9 | 4.9  | 46.4 | 40.5 | 13.1 |
| 기 능 노 무  | 100.0           | 67.0 | 27.1 | 6.0  | 63.5 | 31.5 | 5.0  | 38.9 | 44.6 | 16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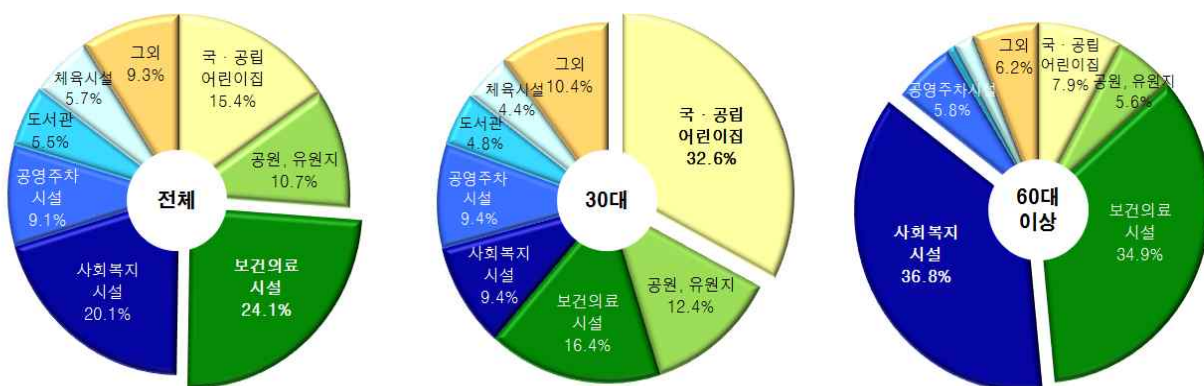
주: 1) 사회보험료 납부자

### 3.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

전반적으로 「보건의료시설(24.1%)」 확충을 많이 요구

■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「보건의료시설」이 24.1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은 「사회복지시설(20.1%)」, 「국·공립 어린이집(15.4%)」 순임

○ 연령별로 보면, 10대는 「공원, 유원지」, 20대와 30대는 「국·공립 어린이집」, 40~50대는 「보건의료시설」, 60대 이상은 「사회복지시설」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



<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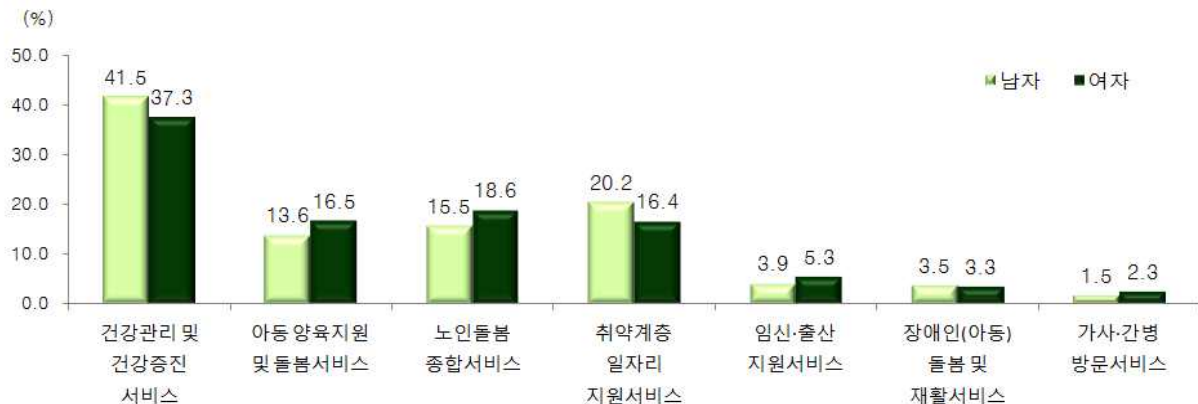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국·공립 어린이집 | 어린이 놀이터 | 공원, 유원지 | 보건 의료 시설 | 사회 복지 시설 | 공영 주차 시설 | 문화 예술 회관 | 도서관  | 체육 시설 및 경기장 | 쓰레기 소각장 등 | 기타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13.5      | 2.5     | 11.2    | 23.9     | 20.8     | 10.0     | 5.0      | 5.7  | 5.4         | 1.6       | 0.4 |
| 2013년    | 100.0 | 15.4      | 2.4     | 10.7    | 24.1     | 20.1     | 9.1      | 4.5      | 5.5  | 5.7         | 1.9       | 0.5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16.3      | 2.4     | 11.2    | 22.7     | 19.2     | 9.8      | 4.3      | 6.0  | 5.7         | 1.8       | 0.4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11.3      | 2.3     | 8.4     | 30.8     | 24.2     | 5.7      | 5.2      | 3.1  | 5.9         | 2.1       | 1.0 |
| 남 자      | 100.0 | 14.5      | 2.0     | 10.3    | 23.2     | 18.6     | 11.5     | 3.7      | 5.1  | 8.7         | 1.7       | 0.5 |
| 여 자      | 100.0 | 16.4      | 2.8     | 11.2    | 25.0     | 21.5     | 6.8      | 5.2      | 5.8  | 2.8         | 2.0       | 0.5 |
| 13~19세   | 100.0 | 6.6       | 2.7     | 19.7    | 13.1     | 9.1      | 3.7      | 9.4      | 17.0 | 17.0        | 1.2       | 0.5 |
| 20~29세   | 100.0 | 20.5      | 2.4     | 12.5    | 16.9     | 11.6     | 10.8     | 8.2      | 8.2  | 7.3         | 1.4       | 0.3 |
| 30~39세   | 100.0 | 32.6      | 5.3     | 12.4    | 16.4     | 9.4      | 9.4      | 4.0      | 4.8  | 4.4         | 1.0       | 0.1 |
| 40~49세   | 100.0 | 11.4      | 2.1     | 10.2    | 26.2     | 21.1     | 11.6     | 3.9      | 5.8  | 5.3         | 2.0       | 0.4 |
| 50~59세   | 100.0 | 11.7      | 1.1     | 8.5     | 30.6     | 25.0     | 11.5     | 2.7      | 2.0  | 3.7         | 2.8       | 0.5 |
| 60세이상    | 100.0 | 7.9       | 0.9     | 5.6     | 34.9     | 36.8     | 5.8      | 1.6      | 0.8  | 1.9         | 2.5       | 1.2 |

#### 4.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

#####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(39.4%)」 확대가 가장 필요

-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」가 39.4%로 가장 많고, 다음은 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서비스(18.3%)」, 「노인돌봄 종합서비스(17.1%)」 등의 순임
-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」 다음으로 남자는 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서비스」를, 여자는 「노인돌봄 종합서비스」를 향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생각함
-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「아동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」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, 그 외 연령층은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」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



##### <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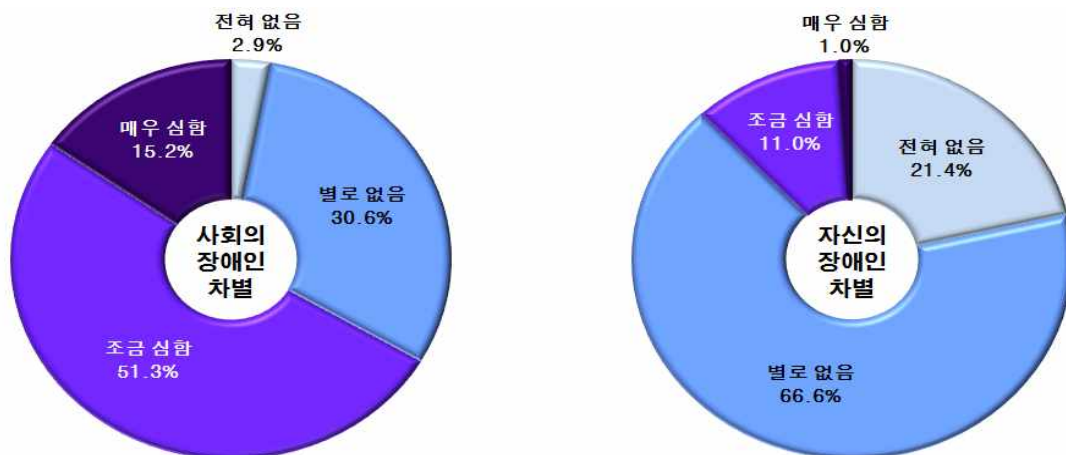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건강관리<br>및 건강<br>증진서비스 | 아동양육<br>지원 및<br>돌봄서비스 | 노인돌봄<br>종합<br>서비스 | 취약계층<br>일자리<br>지원서비스 | 임신·출산<br>지원<br>서비스 | 장애인(아동)<br>돌봄 및<br>재활서비스 | 가사·간병<br>방문<br>서비스 | 기타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39.2                  | 16.0                  | 16.6              | 17.7                 | 5.0  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| 0.3 |
| 2013년    | 100.0 | 39.4                  | 15.1                  | 17.1              | 18.3                 | 4.6  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| 0.3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39.4                  | 15.6                  | 16.5              | 18.4    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| 0.2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39.5                  | 12.6                  | 20.0              | 17.6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       | 3.5         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   | 0.4 |
| 남 자      | 100.0 | 41.5                  | 13.6                  | 15.5              | 20.2    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   | 3.5              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0.2 |
| 여 자      | 100.0 | 37.3                  | 16.5                  | 18.6              | 16.4                 | 5.3 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   | 0.3 |
| 13~19세   | 100.0 | 40.9                  | 15.2                  | 10.0              | 20.9                 | 5.7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   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| 0.4 |
| 20~29세   | 100.0 | 33.4                  | 19.5                  | 9.1               | 22.8                 | 10.6               | 3.8                      | 0.7                | 0.1 |
| 30~39세   | 100.0 | 31.5                  | 34.7                  | 9.1               | 13.3                 | 7.6   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| 0.1 |
| 40~49세   | 100.0 | 45.0                  | 10.9                  | 16.1              | 20.4                 | 2.1  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| 1.8                | 0.2 |
| 50~59세   | 100.0 | 44.6                  | 7.3                   | 17.9              | 22.2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   | 0.2 |
| 60세이상    | 100.0 | 40.2                  | 4.6                   | 34.5              | 12.4         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2.6                      | 3.7                | 0.5 |

## 5.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

###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비율 66.5%

- 우리 사회의 교육,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, 차별이 '심하다'고 생각하는 사람은 66.5%로 나타남
-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차별이 '심하다'고 생각하는 사람이 12.0%에 불과하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



<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전혀 없음       | 별로 없음       | 조금 심함       | 매우 심함 <sup>1)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b>&lt;사회의 장애인 차별&gt;</b>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011년 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2.2         | 25.5        | 46.1        | 26.2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             | <b>100.0</b> | <b>2.9</b>  | <b>30.6</b> | <b>51.3</b> | <b>15.2</b>         |
| 장애인 <sup>2)</sup>         | 100.0        | 4.8         | 31.3        | 50.6        | 13.4                |
| 비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2.8         | 30.6        | 51.3        | 15.3                |
| <b>&lt;자신의 장애인 차별&gt;</b>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011년 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18.3        | 67.8        | 12.0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             | <b>100.0</b> | <b>21.4</b> | <b>66.6</b> | <b>11.0</b> | <b>1.0</b>          |
| 13~19세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18.2        | 66.9        | 13.7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|
| 20~29세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18.8        | 65.4        | 14.5        | 1.3                 |
| 30~39세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16.1        | 70.2        | 12.7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|
| 40~49세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19.3        | 69.5        | 10.0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|
| 50~59세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24.5        | 64.9        | 9.9         | 0.7                 |
| 60세이상    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29.5        | 62.7        | 7.3         | 0.5                 |

주: 1) 2011년은 '심함'과 '매우 심함'을 합한 수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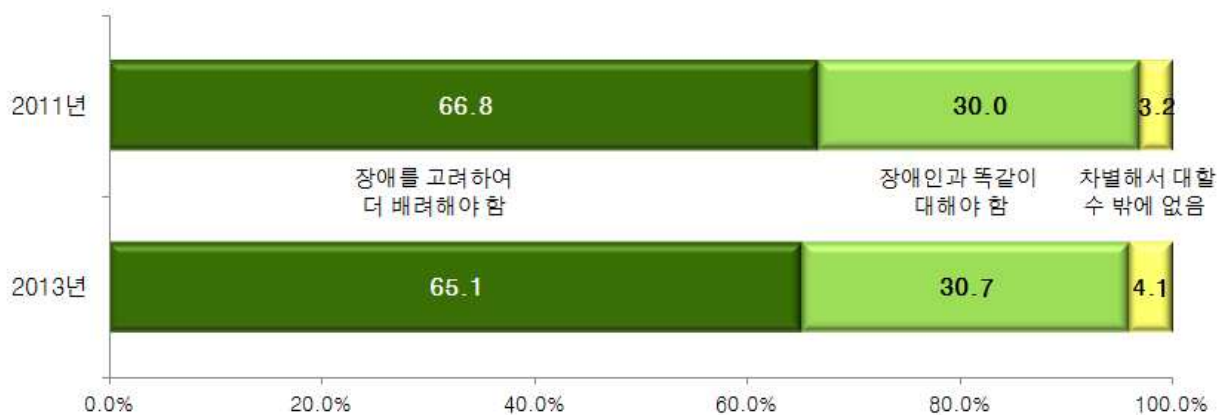
2)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(이하 동일)

## 6. 장애인에 대한 견해

###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비율 65.1%

■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「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」이 65.1%로 가장 많았고, 「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」이 30.7%, 「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」은 4.1%로 나타남

- 「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」는 의견의 경우,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,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음



### < 장애인에 대한 견해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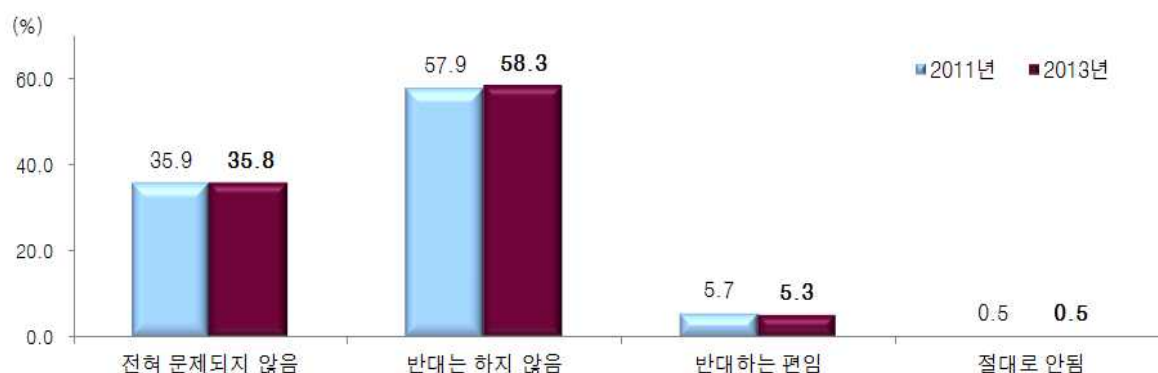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| 계     |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|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 | 장애를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66.8              | 30.0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3년    | 100.0 | 65.1              | 30.7            | 4.1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64.8              | 30.9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66.8              | 29.9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남 자      | 100.0 | 64.0              | 31.8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 자      | 100.0 | 66.2              | 29.8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 애 인    | 100.0 | 67.5              | 30.8            | 1.8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장애인     | 100.0 | 65.0              | 30.7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7.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

### 집근처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해 5.8%만 반대

■ 집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,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「전혀 문제되지 않음」 35.8%, 「반대는 하지 않음」 58.3%, 「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」 5.8%로 나타남

- 장애인의 경우 「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는 하지 않음」이 96.9%로 나타난 반면, 비장애인은 94.0%로 나타나 다소 견해 차를 보임
-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「전혀 문제되지 않음」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「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」은 60대 이상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



### <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>

(단위 : %)

|       |        | 계     | 전혀문제<br>되지않음 | 반 대 는<br>하지않음 | 반대하는<br>편 임 | 절대로<br>안 됨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1년 |        | 100.0 | 35.9         | 57.9          | 5.7         | 0.5        |
| 2013년 |        | 100.0 | 35.8         | 58.3          | 5.3         | 0.5        |
| 장애여부  | 장 애 인  | 100.0 | 54.1         | 42.8          | 2.7         | 0.3        |
|       | 비장애인   | 100.0 | 34.9         | 59.1          | 5.4         | 0.5        |
| 연령별   | 13~19세 | 100.0 | 36.9         | 57.8          | 5.0         | 0.4        |
|       | 20~29세 | 100.0 | 38.3         | 56.7          | 4.4         | 0.5        |
|       | 30~39세 | 100.0 | 36.3         | 58.3          | 5.0         | 0.4        |
|       | 40~49세 | 100.0 | 36.1         | 58.4          | 5.0         | 0.4        |
|       | 50~59세 | 100.0 | 33.0         | 60.9          | 5.5         | 0.6        |
|       | 60세이상  | 100.0 | 35.2         | 57.5          | 6.5         | 0.8        |

## 8.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

**장애인은 「장애수당 지급(41.0%)」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**

■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하여 「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한다」고 생각하는 사람이 47.2%로 가장 많고, 「계속 확대하여야 한다」 27.7%, 「충분하다」 7.4% 순으로 나타남

- 「계속 확대하여야 한다」의 경우 장애인은 43.8%로 비장애인(26.9%)보다 높게 나타남

### <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계속 확대       | 재원이<br>허락한다면<br>확대 | 충분함        | 잘 모르겠음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33.6        | 45.2               | 5.7        | 15.5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27.7</b> | <b>47.2</b>        | <b>7.4</b> | <b>17.7</b> |
| 장 애 인        | 100.0        | 43.8        | 40.6               | 5.1        | 10.5        |
| 비장애인         | 100.0        | 26.9        | 47.5               | 7.5        | 18.1        |

■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「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의 지급(41.0%)」, 「의료비 지원(18.7%)」, 「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(10.3%)」 순으로 원함

### <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장애인<br>연금 및<br>장애<br>수당<br>지급 | 의료비<br>지 원  | 교육비<br>지 원 | 주거비<br>지 원 | 자립<br>자금<br>대여 | 고용촉진<br>및<br>직업재활<br>사업 | 장애인<br>생활<br>시설 및<br>복지관<br>확충 | 재활<br>보조<br>기구<br>배부 | 활동<br>보조인<br>지원 | 문화예술<br>행사<br>참여<br>지원 | 장애인을<br>이해하고<br>포용하는<br>사회분위기<br>조성 | 장애아동<br>재활치료<br>및<br>양육지원<br>서비스 <sup>2)</sup>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   | 23.2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.9        | 5.4        | 4.8        | 4.0            | 16.3                    | 8.2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3   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| 0.5                    | 9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   | <b>22.5</b>                   | <b>20.2</b> | <b>4.7</b> | <b>4.6</b> | <b>4.2</b>     | <b>17.2</b>             | <b>9.3</b>                     | <b>1.7</b>           | <b>1.7</b>      | <b>0.4</b>             | <b>10.3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3.2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 애 인        | 100.0           | 41.0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7        | 3.0        | 3.9        | 2.8            | 10.3                    | 8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     | 1.4             | 0.4 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장애인         | 100.0           | 21.4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.2        | 4.8        | 4.6        | 4.2            | 17.6                    | 9.4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| 0.4                    | 10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 : 1)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

2) '기타' 포함

## 9. 노후 준비방법 (19세 이상 가구주)

**노후 준비 가구주는 72.9%, 주된 준비방법은 「국민연금(52.5%)」**

- 「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」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는 72.9%로,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「국민연금」이 52.5%로 가장 많고, 다음은 「예금·적금」 17.4%, 「사적연금」 11.3% 순임
  -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의 노후 준비율이 79.4%인 반면, 여자 가구주는 53.4%에 불과함
  -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노후 준비율이 각각 87.1%, 85.7%로 가장 높음
-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주(27.1%)의 경우 그 이유는 「준비할 능력 없음(49.7%)」, 「앞으로 준비할 계획임(24.0%)」, 「자녀에게 의탁(17.4%)」 순으로 나타남
  - 특히,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 가구주는 「준비할 능력 없음」이 58.1%로 절반이 넘었고, 「자녀에게 의탁」이 31.7%로 나타남

< 노후 준비방법 (19세 이상 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준비하고 있음     | 소계           | 국민연금        | 기타공적연금     | 사적연금        | 퇴직급여       | 예금·적금       | 부동산운용      | 기타 <sup>1)</sup> | 준비하고 있지 않음  | 소계           | 아직생각안함     | 앞으로준비할계획    | 준비능력없음      | 자녀에게의탁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75.8        | 100.0        | 55.2        | 7.2        | 13.5        | 2.5        | 15.2        | 5.3        | 1.0              | 24.2        | 100.0        | 10.2       | 22.7        | 52.2        | 14.9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72.9</b> | <b>100.0</b> | <b>52.5</b> | <b>7.8</b> | <b>11.3</b> | <b>4.6</b> | <b>17.4</b> | <b>5.3</b> | <b>1.0</b>       | <b>27.1</b> | <b>100.0</b> | <b>8.8</b> | <b>24.0</b> | <b>49.7</b> | <b>17.4</b> |
| 도시(동부)       | 100.0        | 75.7        | 100.0        | 53.1        | 7.8        | 11.6        | 4.6        | 16.9        | 5.1        | 0.9              | 24.3        | 100.0        | 8.9        | 26.0        | 49.9        | 15.1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60.1        | 100.0        | 49.0        | 8.2        | 9.3         | 4.3        | 20.8        | 6.9        | 1.5              | 39.9        | 100.0        | 8.4        | 18.4        | 49.2        | 23.9        |
| 남자           | 100.0        | 79.4        | 100.0        | 53.7        | 8.3        | 10.8        | 5.0        | 16.2        | 5.1        | 0.9              | 20.6        | 100.0        | 10.6       | 29.7        | 47.5        | 12.2        |
| 여자           | 100.0        | 53.4        | 100.0        | 47.4        | 5.9        | 13.4        | 2.6        | 22.8        | 6.3        | 1.6              | 46.6        | 100.0        | 6.4        | 16.5        | 52.7        | 24.4        |
| 19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59.1        | 100.0        | 53.9        | 3.7        | 10.2        | 4.4        | 25.5        | 1.3        | 0.8              | 40.9        | 100.0        | 31.8       | 53.9        | 14.2        | -   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87.1        | 100.0        | 53.1        | 6.6        | 14.5        | 5.1        | 17.6        | 2.2        | 0.9              | 12.9        | 100.0        | 16.6       | 64.6        | 18.8        | -   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85.7        | 100.0        | 54.0        | 7.6        | 14.5        | 4.5        | 14.6        | 4.1        | 0.7              | 14.3        | 100.0        | 9.3        | 43.4        | 46.8        | 0.5 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80.2        | 100.0        | 58.6        | 7.2        | 9.5         | 4.2        | 15.7        | 4.2        | 0.5              | 19.8        | 100.0        | 9.5        | 29.5        | 58.6        | 2.4         |
| 60세이상        | 100.0        | 51.6        | 100.0        | 42.3        | 10.9       | 6.3         | 4.8        | 21.3        | 12.2       | 2.2              | 48.4        | 100.0        | 3.5        | 6.7         | 58.1        | 31.7        |

주 : 1) '주식, 채권 등' 포함

## 10.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(60세 이상)

###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어려움은 「경제문제」와 「건강」

-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「경제적인 어려움(38.6%)」과 「건강문제(35.5%)」이며, 연령이 높아질수록 「건강문제」의 비율이 높아짐
  - 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「경제적인 어려움」에 대해, 농어촌지역은 「건강문제」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  - 남녀별로는 「경제적인 어려움」과 「건강문제」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



### <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(60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경제적인 어려움 |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| 소일거리 없음 | 건강문제 | 외로움·소외감 |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|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|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| 노인 복지시설 부족 | 기타  | 어려움 없음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2013년    | 100.0 | 38.6     | 3.1             | 4.7     | 35.5 | 2.9     | 0.3        | 1.7           | 0.9            | 1.9        | 0.2 | 10.1  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40.5     | 3.7             | 5.5     | 32.6 | 2.6     | 0.4        | 1.9           | 0.9            | 2.0        | 0.1 | 9.8   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33.7     | 1.4             | 2.6     | 43.1 | 3.9     | 0.1        | 1.0           | 1.0            | 1.8        | 0.5 | 10.9   |
| 남 자      | 100.0 | 37.7     | 5.3             | 5.4     | 31.9 | 2.1     | 0.3        | 2.2           | 0.7            | 2.0        | 0.0 | 12.4   |
| 여 자      | 100.0 | 39.3     | 1.4             | 4.2     | 38.4 | 3.6     | 0.3        | 1.3           | 1.1            | 1.8        | 0.4 | 8.3    |
| 60~64세   | 100.0 | 42.2     | 5.8             | 4.5     | 26.8 | 2.1     | 0.3        | 1.6           | 0.7            | 1.8        | 0.2 | 14.0   |
| 65~69세   | 100.0 | 40.1     | 3.4             | 5.4     | 32.8 | 2.1     | 0.1        | 2.6           | 0.5            | 1.6        | 0.3 | 11.2   |
| 70~79세   | 100.0 | 36.8     | 1.7             | 5.0     | 40.2 | 2.9     | 0.3        | 1.6           | 1.1            | 2.2        | 0.2 | 8.0    |
| 80세이상    | 100.0 | 32.8     | 0.2             | 3.2     | 47.1 | 6.7     | 0.7        | 0.4           | 1.5            | 1.9        | 0.3 | 5.2    |

## 11. 생활비 마련 방법 (60세 이상)

**고령자들은 주로 「본인 및 배우자 부담(63.6%)」 으로 생활비를 마련**

-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「본인 및 배우자 부담」이 63.6%로 가장 많고, 「자녀 또는 친척 지원」 28.8%, 「정부 및 사회단체」 7.6% 순으로 나타남
  - 성별로 보면, 남자의 경우 「본인 및 배우자 부담」이 76.6%를 차지한 반면, 여자는 53.7%로 남자가 22.9%p 높았음
  - 연령이 높아질수록 「자녀 또는 친척 지원」이나 「정부 및 사회단체」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짐
-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, 그 방법은 「근로소득 및 사업소득」 53.1%, 「연금, 퇴직급여」 24.9%, 「재산소득」 12.2% 순임
  - 「근로소득 및 사업소득」에 의한 생활비 마련은 연령이 낮을수록, 「연금, 퇴직급여」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짐

### < 생활비 마련방법 (60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본인<br>및<br>배우자<br>부담 | 소계           | 근로<br>소득,<br>사업<br>소득 | 재산<br>소득    | 연금,<br>퇴직<br>급여 | 예금         | 자녀<br>또는<br>친척<br>지원 | 소계           | 함께<br>살고<br>있음 | 함께<br>살고<br>있지<br>않음 | 정부<br>및<br>사회<br>단체 | 기타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60.1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50.9                  | 12.4        | 27.6            | 9.1        | 32.0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7.1           | 52.9                 | 7.7                 | 0.2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63.6</b>          | <b>100.0</b> | <b>53.1</b>           | <b>12.2</b> | <b>24.9</b>     | <b>9.9</b> | <b>28.8</b>          | <b>100.0</b> | <b>45.8</b>    | <b>54.2</b>          | <b>7.6</b>          | <b>0.1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63.1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4.4                  | 14.7        | 29.3            | 11.6       | 29.9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50.1           | 49.9                 | 7.0                 | 0.1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65.1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74.8                  | 6.0         | 13.6            | 5.6        | 25.8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32.7           | 67.3                 | 9.1                 | 0.0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76.6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57.9                  | 10.0        | 25.0            | 7.1        | 17.7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0.7           | 59.3                 | 5.7                 | 0.0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53.7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7.8                  | 14.7        | 24.7            | 12.9       | 37.3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7.6           | 52.4                 | 9.0                 | 0.1        |
| 60~64세       | 100.0        | 84.9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63.3                  | 9.1         | 19.6            | 8.0        | 12.0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64.0           | 36.0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| 0.0        |
| 65~69세       | 100.0        | 74.7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51.1                  | 12.0        | 27.5            | 9.4        | 20.1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7.0           | 53.0     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  | 0.1        |
| 70~79세       | 100.0        | 53.4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5.7                  | 14.6        | 27.4            | 12.3       | 37.5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1.5           | 58.5                 | 9.0                 | 0.1        |
| 80세이상        | 100.0        | 23.7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29.0                  | 23.8        | 35.4            | 11.7       | 57.9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| 44.7           | 55.3                 | 18.4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
## 12.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(60세 이상)

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는 67.8%이고, 주된이유는 「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」

■ 60세 이상 고령자 중 32.2%가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음

-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「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(36.0%)」 하거나 「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(29.3%)」 하기 때문임
-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, 동거 이유로 「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」이 가장 높은 반면, 여자는 「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」 비중이 높음

■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고령자(67.8%)의 경우, 그 이유는 「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(30.8%)」, 「독립생활 가능(28.6%)」, 「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(20.6%)」 순임

### <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(60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| 계     | 같이 살고 있음 |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|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 |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| 손·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 |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|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 이므로 | 기타  |
| 2011년 | 100.0 | 33.4     | 100.0              | 34.0         | 27.4         | 11.7                     | 18.8        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   | 4.2 |
| 2013년 | 100.0 | 32.2     | 100.0              | 36.0         | 29.3         | 10.2                     | 18.0                     | 4.2                | 2.2 |
| 남 자   | 100.0 | 30.8     | 100.0              | 23.9         | 35.0         | 7.4                      | 23.8                     | 7.2                | 2.7 |
| 여 자   | 100.0 | 33.2     | 100.0              | 44.7         | 25.2         | 12.3                     | 13.9                     | 2.0                | 1.9 |

|       | 계     | 같이 살고 있지 않음 |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| 독립생활 가능 |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|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| 자녀의 직장, 학업 때문에 | 자녀와의 불화 때문에 | 기타  |
| 2011년 | 100.0 | 66.6        | 100.0                 | 21.8    | 21.6         | 33.3         | 19.1           | 1.3         | 2.8 |
| 2013년 | 100.0 | 67.8        | 100.0                 | 28.6    | 20.6         | 30.8         | 16.0           | 1.3         | 2.7 |
| 남 자   | 100.0 | 69.2        | 100.0                 | 33.1    | 17.2         | 29.3         | 16.9           | 1.0         | 2.4 |
| 여 자   | 100.0 | 66.8        | 100.0                 | 24.9    | 23.4         | 32.0         | 15.2           | 1.5         | 3.0 |

### 13.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 (60세 이상)

**60세 이상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향후에는 「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」**

-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 
「같이 살고 싶다」는 27.0%, 「같이 살고 싶지 않다」는 73.0%로 나타남
  - 「같이 살고 싶다」는 응답은 여자(29.7%)가 남자(23.5%)보다 많음
  - 또한,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「같이 살고 싶다」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향후 자녀와 「같이 살고 싶지 않다」고 응답한 경우, '장래 살고 싶은 곳'으로는  
「자기 집(78.8%)」이 가장 많고, 「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(15.4%)」, 「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(5.2%)」 순임
  - 2011년에 비해 「자기 집」에서 살고 싶은 고령자는 감소한 반면, 「무료양로원 또는 요양원」에서 살고 싶은 비중은 높아짐

#### <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 (60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같이 살고<br>싶음 | 같이 살고<br>싶지 않음 | 살고 싶은 곳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| 자기 집        | 무료<br>양로원<br>또는<br>요양원 | 유료<br>양로원<br>또는<br>요양원 | 기 타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29.0        | 71.0           | 100.0        | 81.6        | 11.6                   | 5.7                    | 1.1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27.0</b> | <b>73.0</b>    | <b>100.0</b> | <b>78.8</b> | <b>15.4</b>            | <b>5.2</b>             | <b>0.7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28.0        | 72.0           | 100.0        | 77.2        | 16.2                   | 5.9                    | 0.7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24.3        | 75.7           | 100.0        | 82.9        | 13.2    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| 0.6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3.5        | 76.5           | 100.0        | 81.4        | 12.4                   | 5.3                    | 0.8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9.7        | 70.3           | 100.0        | 76.6        | 17.9                   | 5.0      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60~64세       | 100.0        | 23.3        | 76.7           | 100.0        | 81.0        | 12.4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           | 0.8        |
| 65~69세       | 100.0        | 24.1        | 75.9           | 100.0        | 80.0        | 13.1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           | 1.1        |
| 70~79세       | 100.0        | 27.3        | 72.7           | 100.0        | 78.4        | 16.9                   | 4.4                    | 0.3        |
| 8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40.1        | 59.9           | 100.0        | 70.8        | 24.1                   | 4.5                    | 0.5        |

## 14.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(60세 이상)

고령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「건강검진」이 30.9%로 가장 많아

■ 60세 이상 고령자의 92.5%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「받고싶다」고 응답함

-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「건강검진(30.9%)」이 가장 많고 다음은 「간병서비스(24.1%)」, 「가사서비스(17.5%)」, 「취업알선(10.6%)」 등의 순임
- 「간병서비스」, 「가사서비스」, 「식사제공」, 「이야기 상대」, 「목욕서비스」 등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<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(60세 이상)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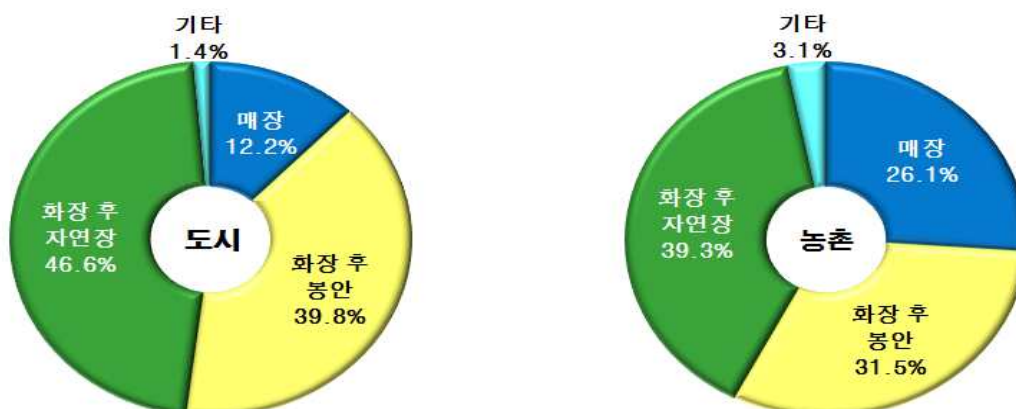
|        | 계     | 받고<br>싶음 | 소계    | 간병<br>서비스 | 목욕<br>서비스 | 가사<br>서비스 | 식사<br>제공 | 이야기<br>상 대 | 취업<br>알선 | 건강<br>검진 | 취미<br>여가<br>프로그램 | 정보화<br>등<br>각종<br>교육 | 기타  | 받고<br>싶지<br>않음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2011년  | 100.0 | 94.7     | 100.0 | 26.1      | 2.0       | 14.5      | 3.1      | 1.6        | 10.6     | 34.4     | 6.1              | 1.3                  | 0.3 | 5.3            |
| 2013년  | 100.0 | 92.5     | 100.0 | 24.1      | 2.0       | 17.5      | 3.9      | 2.3        | 10.6     | 30.9     | 7.3    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| 0.3 | 7.5            |
| 남 자    | 100.0 | 90.9     | 100.0 | 23.2      | 1.5       | 11.0      | 3.6      | 1.9        | 14.8     | 33.9     | 8.2              | 1.5                  | 0.2 | 9.1            |
| 여 자    | 100.0 | 93.7     | 100.0 | 24.8      | 2.4       | 22.4      | 4.2      | 2.5        | 7.4      | 28.7     | 6.7              | 0.8                  | 0.3 | 6.3            |
| 60~64세 | 100.0 | 87.6     | 100.0 | 19.4      | 1.1       | 12.9      | 2.6      | 1.4        | 16.4     | 32.7     | 11.2             | 2.1                  | 0.1 | 12.4           |
| 65~69세 | 100.0 | 92.9     | 100.0 | 22.9      | 1.1       | 15.7      | 2.6      | 1.9        | 13.0     | 32.7     | 8.7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 | 0.3 | 7.1            |
| 70~79세 | 100.0 | 94.5     | 100.0 | 25.9      | 2.2       | 20.2      | 4.6      | 2.1        | 7.7      | 31.0     | 5.2              | 0.7                  | 0.3 | 5.5            |
| 80세이상  | 100.0 | 96.9     | 100.0 | 31.4      | 5.0       | 22.7      | 7.2      | 5.1        | 2.0      | 23.4     | 2.6              | 0.3                  | 0.4 | 3.1            |

## 15. 선호 장례방법 (19세 이상)

장례방법은 「 화장 후 자연장(45.3%)」을 가장 선호

■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조사한 결과, 「 화장 후 자연장(수목장 등)」이 45.3%로 가장 많고, 다음은 「 화장 후 봉안(납골당, 납골묘 등) (38.3%)」, 「매장(묘지) (14.7%)」 순임

- 특히, 「매장(묘지)」 선호도는 농어촌지역(26.1%)이 도시지역(12.2%)보다 13.9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연령별로 보면 「매장(묘지)」 선호도는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은 반면, 「 화장 후 봉안」과 「 화장 후 자연장」은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낮아져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장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< 선호 장례방법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매장(묘지) | 화장 후 봉안<br>(납골당, 납골묘 등) | 화장 후 자연장<br>(수목장 등) | 기타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17.2   | 39.3                    | 41.1                | 2.4 |
| 2013년    | 100.0 | 14.7   | 38.3                    | 45.3                | 1.7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12.2   | 39.8                    | 46.6                | 1.4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26.1   | 31.5                    | 39.3                | 3.1 |
| 남 자      | 100.0 | 16.3   | 39.5                    | 42.8                | 1.5 |
| 여 자      | 100.0 | 13.2   | 37.2                    | 47.7                | 1.9 |
| 19~29세   | 100.0 | 9.1    | 40.5                    | 49.1                | 1.3 |
| 30~39세   | 100.0 | 8.0    | 43.5                    | 47.3                | 1.1 |
| 40~49세   | 100.0 | 9.4    | 38.2                    | 51.0                | 1.4 |
| 50~59세   | 100.0 | 14.3   | 35.7                    | 48.0                | 2.0 |
| 60~69세   | 100.0 | 23.6   | 34.4                    | 39.5                | 2.5 |
| 70세이상    | 100.0 | 39.0   | 34.1                    | 24.3                | 2.6 |

## Ⅱ. 사회참여

### 16. 사회적 관계망

「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」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경우가 74.7%

- 「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, 74.7%가 '있다'고 응답
  - 또한 「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」는 응답자의 47.0%, 「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」는 81.1%가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남녀별로는 남자는 여자보다 「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」와 「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#### < 사회적 관계망 >

(단위 : %, 명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<sup>1)</sup> |            |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|            |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도움 받을 사람 있음                     | 사람수        | 도움 받을 사람 있음           | 사람수        | 도움 받을 사람 있음               | 사람수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75.9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4        | 48.6                  | 2.6        | 81.0                      | 3.2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74.7</b>                     | <b>2.2</b> | <b>47.0</b>           | <b>2.5</b> | <b>81.1</b>               | <b>3.1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75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47.9                  | 2.4        | 81.8     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70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| 42.4                  | 2.5        | 77.5                      | 2.9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75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| 48.1                  | 2.6        | 79.2     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74.4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45.9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| 82.9                      | 3.0        |
| 13~18세       | 100.0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57.8                  | 4.0        | 88.0                      | 4.6        |
| 19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80.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7        | 59.1                  | 2.6        | 88.0                      | 3.7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78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55.2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86.2                      | 3.0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74.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47.4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81.9                      | 2.8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72.2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| 39.2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| 77.2                      | 2.6        |
| 60세이상        | 100.0        | 70.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0        | 31.0                  | 2.1        | 70.0     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|

주: 1) 19세 이상 조사대상임

## 17. 단체 참여

### 「친목 및 사교단체(75.3%)」에 가장 많이 참여

- 지난 1년 동안 계, 동창회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은 50.1%로 2011년 46.6%보다 3.5%p 증가함
  - 성별로는 남자의 단체 참여율이 52.4%로 여자 47.9%보다 높은 편임
  -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여 50대의 참여율(59.9%)이 가장 높고, 60세가 넘어가면서 다시 감소함
- 단체 중 「친목 및 사교단체(계, 동창회 등)」에 참여한 사람이 75.3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은 「취미, 스포츠 및 레저단체(32.8%)」, 「종교단체(26.4%)」 순임
  - 「친목 및 사교단체」 다음으로 남자는 「취미, 스포츠 및 레저단체」에, 여자는 「종교단체」에 많이 참여함
  - 연령별로 보면 「친목 및 사교단체」 외에 40대 이전은 「취미, 스포츠 및 레저단체」에 주로 참여하다가, 50대 이후부터 「종교단체」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짐

### < 단체 참여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참여자         | 친목, 사교<br>단체 | 종교<br>단체    | 취미, 스포츠<br>레저단체 | 시민회<br>단체   | 학술<br>단체   | 이익<br>단체   | 정치<br>단체   | 지역<br>사회<br>모임 | 기타         | 미<br>참여자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46.6        | 73.1         | 28.7        | 34.0            | 11.0        | 4.7        | 2.5        | 1.0        | 10.1           | 0.7        | 53.4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50.1</b> | <b>75.3</b>  | <b>26.4</b> | <b>32.8</b>     | <b>11.3</b> | <b>4.6</b> | <b>2.1</b> | <b>0.7</b> | <b>8.9</b>     | <b>0.3</b> | <b>49.9</b>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52.4        | 77.3         | 21.2        | 39.8            | 10.8        | 5.1        | 2.8        | 1.0        | 8.6            | 0.3        | 47.6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47.9        | 73.2         | 32.0        | 25.5            | 11.7        | 4.0        | 1.3        | 0.4        | 9.2            | 0.3        | 52.1        |
| 13~19세       | 100.0        | 35.1        | 41.3         | 30.1        | 51.0            | 30.4        | 8.8        | 0.7        | 0.7        | 0.7            | 0.9        | 64.9        |
| 20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48.0        | 77.7         | 19.8        | 42.8            | 10.8        | 10.1       | 1.6        | 0.4        | 1.7            | 0.5        | 52.0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49.2        | 77.5         | 23.2        | 38.5            | 7.4         | 5.6        | 3.2        | 0.7        | 6.0            | 0.3        | 50.8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57.9        | 78.3         | 26.7        | 34.4            | 11.8        | 3.6        | 3.5        | 0.9        | 9.6            | 0.1        | 42.1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59.9        | 81.7         | 27.2        | 27.1            | 11.3        | 2.6        | 1.6        | 0.7        | 12.3           | 0.1        | 40.1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44.1        | 73.8         | 32.3        | 16.1            | 6.8         | 1.0        | 0.7        | 0.8        | 16.3           | 0.4        | 55.9        |

## 18. 기부 경험

**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4.6%이며, 주로 현금을 기부**

- 지난 1년 동안 13세 이상 인구 중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4.6%로 나타났음
  - 농어촌(읍면부)지역보다 도시(동부)지역이,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음
  - 40대가 44.9%로 기부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, 20대는 24.8%로 가장 적음
- 기부 경험자들은 주로 물품보다 현금(32.5%)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음
  - 현금기부는 남자, 물품기부는 여자의 비중이 더 높음
  -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음

### < 기부 경험과 형태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기부 경험       |             | 기부 형태 <sup>1)</sup>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| 있음          | 현금기부                | 물품기부       |
| 2011년        | 63.6        | 36.4        | 34.8                | 8.5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65.4</b> | <b>34.6</b> | <b>32.5</b>         | <b>5.9</b> |
| 도 시( 동 부)    | 64.1        | 35.9        | 33.7                | 6.2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71.5        | 28.5        | 26.6                | 4.5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62.8        | 37.2        | 35.8                | 4.5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67.9        | 32.1        | 29.2                | 7.2        |
| 13 ~ 19세     | 69.9        | 30.1        | 28.2                | 4.7        |
| 20 ~ 29세     | 75.2        | 24.8        | 23.1                | 3.3        |
| 30 ~ 39세     | 62.0        | 38.0        | 35.6                | 6.7        |
| 40 ~ 49세     | 55.1        | 44.9        | 41.9                | 8.8        |
| 50 ~ 59세     | 59.1        | 40.9        | 38.7                | 7.1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74.6        | 25.4        | 24.0                | 3.7        |
| 자원봉사활동 참 여 자 | 47.1        | 52.9        | 49.5                | 13.3       |
|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  | 69.9        | 30.1        | 28.3                | 4.0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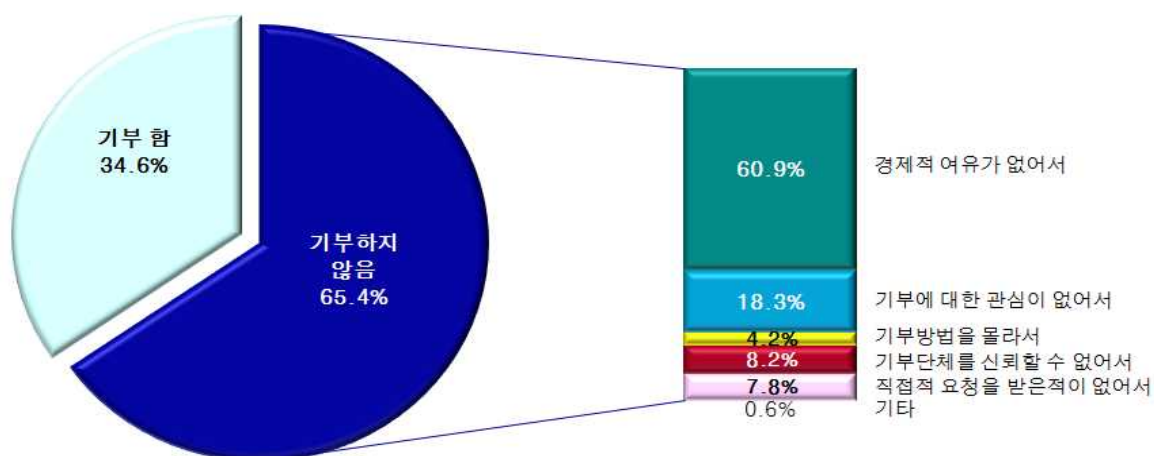
주: 1) 기부 형태는 복수응답임

## 19. 기부하지 않은 이유

**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「경제적 여유가 없어서」가 60.9%**

■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「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60.9%)」가 가장 많았고, 이어서 「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(18.3%)」, 「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(8.2%)」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- 10대의 경우 「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」와 「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」, 「기부방법을 몰라서」 등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



< 기부하지 않은 이유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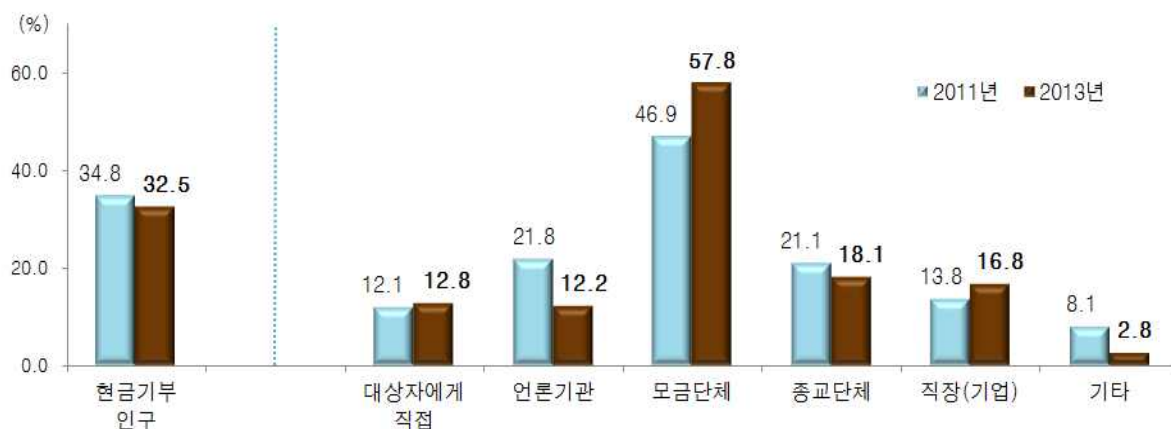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| 기부경험 없음 | 기부하지 않은 이유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| 소계         |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|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| 기부방법을 몰라서 |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|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| 기타  |
| 2011년    | 63.6    | 100.0      | 62.6        | 18.6           | 3.7       | 8.9             | 5.7               | 0.5 |
| 2013년    | 65.4    | 100.0      | 60.9        | 18.3           | 4.2       | 8.2             | 7.8               | 0.6 |
| 도 시(동 부) | 64.1    | 100.0      | 60.2        | 18.3           | 4.4       | 8.6             | 8.0               | 0.5 |
| 농어촌(읍면부) | 71.5    | 100.0      | 63.7        | 18.3           | 3.5       | 6.6             | 6.9               | 0.9 |
| 남 자      | 62.8    | 100.0      | 61.1        | 18.8           | 3.9       | 8.3             | 7.6               | 0.3 |
| 여 자      | 67.9    | 100.0      | 60.7        | 17.9           | 4.6       | 8.1             | 7.9               | 0.8 |
| 13 ~ 19세 | 69.9    | 100.0      | 40.5        | 23.0           | 13.0      | 5.4             | 17.6              | 0.5 |
| 20 ~ 29세 | 75.2    | 100.0      | 56.6        | 21.2           | 3.8       | 9.8             | 8.0               | 0.6 |
| 30 ~ 39세 | 62.0    | 100.0      | 57.0        | 19.3           | 3.5       | 13.0            | 6.5               | 0.7 |
| 40 ~ 49세 | 55.1    | 100.0      | 62.7        | 16.4           | 2.7       | 10.6            | 7.1               | 0.4 |
| 50 ~ 59세 | 59.1    | 100.0      | 66.1        | 16.9           | 2.7       | 7.0             | 6.7               | 0.6 |
| 60세 이상   | 74.6    | 100.0      | 72.2        | 15.5           | 3.0       | 3.8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| 0.7 |

## 20. 기부 경로

**현금기부는 「모금단체」, 물품기부는 「물품후원단체」를 주로 이용**

■ 현금기부 경로는 「모금단체(57.8%)」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, 이어서 「종교단체(18.1%)」와 「직장(기업)(16.8%)」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

■ 물품기부 경로는 「물품후원단체(36.7%)」를 이용한 사람이 가장 많고, 이어서 「대상자에게 직접(32.1%)」, 「종교단체(24.3%)」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

< 현금기부 인구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현금기부<br>인구 | 기부 경로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| 대상자에게<br>직접 | 언론기관 | 모금단체 | 종교단체 | 직장(기업) | 기타  |
| 2011년    | 34.8       | 12.1        | 21.8 | 46.9 | 21.1 | 13.8   | 8.1 |
| 2013년    | 32.5       | 12.8        | 12.2 | 57.8 | 18.1 | 16.8   | 2.8 |
| 도 시(동 부) | 33.7       | 12.5        | 12.1 | 57.8 | 18.7 | 17.3   | 2.7 |
| 농어촌(읍면부) | 26.6       | 14.4        | 12.5 | 57.7 | 14.9 | 14.1   | 2.9 |
| 남 자      | 35.8       | 12.5        | 10.7 | 59.7 | 14.7 | 21.2   | 2.7 |
| 여 자      | 29.2       | 13.1        | 13.9 | 55.5 | 22.2 | 11.7   | 2.9 |

< 물품기부 인구 (복수응답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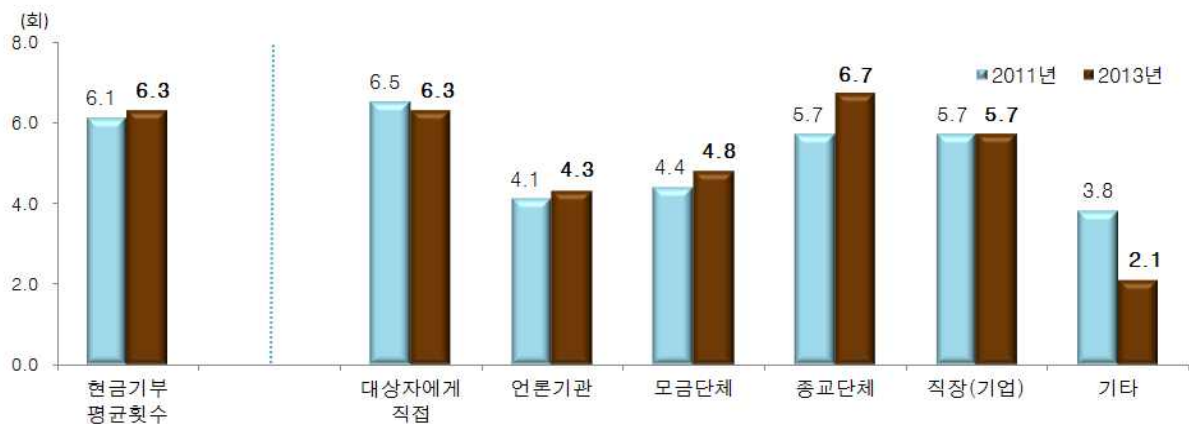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 | 물품기부<br>인구 | 기부 경로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| 대상자에게<br>직접 | 언론기관 | 물품<br>후원단체 | 종교단체 | 직장(기업) | 기타  |
| 2011년    | 8.5        | 30.3        | 4.5  | 23.9       | 35.6 | 12.8   | 4.1 |
| 2013년    | 5.9        | 32.1        | 2.4  | 36.7       | 24.3 | 8.7    | 3.6 |
| 도 시(동 부) | 6.2        | 29.3        | 2.1  | 38.0       | 25.0 | 9.3    | 3.7 |
| 농어촌(읍면부) | 4.5        | 50.4        | 3.9  | 28.3       | 19.7 | 5.2    | 3.2 |
| 남 자      | 4.5        | 33.8        | 3.0  | 32.5       | 22.2 | 13.7   | 2.9 |
| 여 자      | 7.2        | 31.1        | 2.0  | 39.2       | 25.5 | 5.7    | 4.0 |

## 21. 기부 횟수 및 금액

**현금기부 횟수는 평균 6.3회, 물품기부 횟수는 평균 3.3회**

- 지난 1년간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 횟수는 6.3회, 물품을 기부한 사람은 평균 3.3회 기부하였음
- 현금기부 횟수는 「종교단체」가 6.7회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「대상자에게 직접」과 「직장(기업)」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  - 물품기부 횟수는 「대상자에게 직접」이 3.6회로 가장 많고, 이어서 「종교단체」와 「언론기관」, 「물품후원단체」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

< 현금기부 횟수 및 금액 (복수응답) >

(단위 : 회, 천원)

|              | 현금기부 인구<br>1인당 평균<br>기부횟수 | 기부 경로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현금기부 인구<br>1인당 평균<br>기부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자에게<br>직접 | 언론기관       | 모금단체       | 종교단체       | 직장(기업)     | 기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6.1                       | 6.5         | 4.1        | 4.4        | 5.7        | 5.7        | 3.8        | 167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6.3</b>                | <b>6.3</b>  | <b>4.3</b> | <b>4.8</b> | <b>6.7</b> | <b>5.7</b> | <b>2.1</b> | <b>199</b>       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    | 6.4                       | 6.5         | 4.2        | 4.9        | 6.6        | 5.7        | 2.1        | 203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5.8    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| 5.1        | 4.1        | 7.2        | 5.9        | 2.0        | 174               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6.1                       | 6.1         | 4.4        | 4.3        | 7.0        | 5.8        | 2.2        | 220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6.6                       | 6.6         | 4.3        | 5.4        | 6.5        | 5.5        | 1.9        | 174                       |

< 물품기부 횟수 (복수응답) >

(단위 : 회)

|              | 물품기부 인구<br>1인당 평균<br>기부횟수 | 기부 경로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자에게<br>직접 | 언론기관       | 물품<br>후원단체 | 종교단체       | 직장(기업)     | 기타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| 3.1        | 2.8        | 3.2        | 2.5        | 1.8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3.3</b>                | <b>3.6</b>  | <b>2.8</b> | <b>2.8</b> | <b>3.1</b> | <b>2.4</b> | <b>2.6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| 3.0        | 2.8        | 3.2        | 2.3        | 2.7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3.5                       | 3.7         | 2.0        | 2.8        | 2.7        | 3.2        | 2.3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| 2.8        | 2.8        | 3.3        | 2.6        | 4.4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3.2      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| 2.7        | 2.8        | 3.0        | 2.0        | 1.9        |

## 22. 향후 기부 의향

**향후 기부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48.4%,  
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.9%**

- 향후에 「기부할 의향이 있다」고 응답한 경우는 48.4%로 나타났음
  - 농어촌(읍면부)지역보다 도시(동부)지역이,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음
  - 40대 이하의 경우, 절반 이상이 향후 기부의향에 긍정적인 반면,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71.7%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
- 향후 「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」고 생각하는 사람은 35.9%로 나타났음
  - 향후 유산의 기부의향에 대해 60대 이상은 81.4%가 부정적인 반면, 10대는 48.9%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, 세대간 인식차이가 있음을 보여줌



< 향후 기부 의향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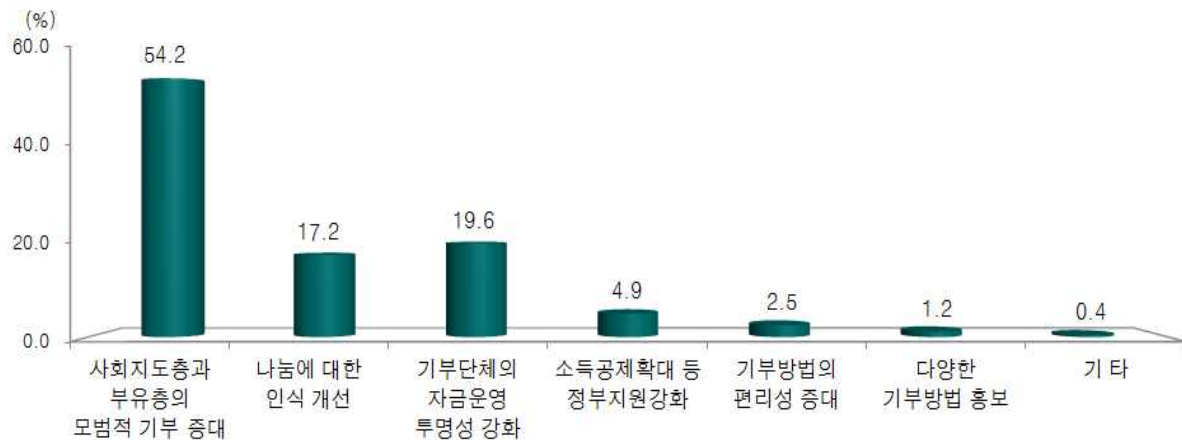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| 향후 기부 의향    |             | 유산 기부 의향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있음          | 없음          | 있음          | 없음 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45.8        | 54.2        | 37.3        | 62.7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48.4</b> | <b>51.6</b> | <b>35.9</b> | <b>64.1</b> |
| 도 시 (동 부)    | 50.1        | 49.9        | 37.3        | 62.7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40.4        | 59.6        | 29.3        | 70.7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48.0        | 52.0        | 36.4        | 63.6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48.7        | 51.3        | 35.4        | 64.6        |
| 13 ~ 19세     | 52.6        | 47.4        | 48.9        | 51.1        |
| 20 ~ 29세     | 51.1        | 48.9        | 43.7        | 56.3        |
| 30 ~ 39세     | 55.5        | 44.5        | 39.6        | 60.4        |
| 40 ~ 49세     | 56.2        | 43.8        | 39.2        | 60.8        |
| 50 ~ 59세     | 49.9        | 50.1        | 33.2        | 66.8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28.3        | 71.7        | 18.6        | 81.4        |

## 23. 기부 문화 확산

### 「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」가 가장 필요

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「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(54.2%)」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, 이어서 「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(19.6%)」, 「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(17.2%)」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○ 대부분의 연령층이 「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」에 이어서 「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」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, 10대의 경우에는 「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(25.4%)」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


### < 기부 문화 확산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| 나눔교육, 대중캠페인 등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 |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 |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| 기부방법의 편리성 증대 | 경조금기부, 유산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법 홍보 | 기타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54.8                  | 16.1                       | 20.6 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 | 2.0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     | 0.6 |
| 2013년    | 100.0 | 54.2                  | 17.2                       | 19.6 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 | 2.5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53.4                  | 17.4                       | 20.0  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| 2.6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58.1                  | 16.0                       | 18.1              | 3.8               | 2.1          | 1.3                       | 0.7 |
| 남 자      | 100.0 | 55.5                  | 15.9                       | 19.6  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| 2.5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
| 여 자      | 100.0 | 52.9                  | 18.4                       | 19.7              | 4.7               | 2.6          | 1.3                       | 0.5 |
| 13 ~ 19세 | 100.0 | 46.3                  | 25.4                       | 14.4              | 6.4               | 5.7          | 1.4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
| 20 ~ 29세 | 100.0 | 50.1                  | 17.1                       | 21.9              | 6.6               | 3.0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
| 30 ~ 39세 | 100.0 | 50.7                  | 16.4                       | 23.4              | 6.4               | 2.1          | 0.9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
| 40 ~ 49세 | 100.0 | 54.5                  | 17.1                       | 20.8              | 4.6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
| 50 ~ 59세 | 100.0 | 55.9                  | 16.9                       | 19.6  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| 2.0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
| 60세 이상   | 100.0 | 62.9                  | 13.8                       | 16.0 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| 1.5                       | 1.2 |

## 24.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

**자원봉사 참여율은 19.9%, 참여자의 연간 평균 참여시간은 25.1시간임**

- 지난 1년 동안 「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」고 응답한 비율은 19.9%로 나타났으며, 10대(80.1%)가 가장 높고, 60대 이상(7.8%)이 가장 낮았음
-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7.6회로 나타났으며, 여자가 8.4회로 남자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음
  - 60대 이상은 평균 12.3회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, 상대적으로 10대가 5.4회로 가장 적게 참여하였음
- 자원봉사활동에 지난 1년간 참여한 시간은 평균 25.1시간으로 나타났음
  - 남자보다는 여자가, 연령이 높을 수록 더 오랜 시간을 참여하였음
- 향후 2년 이내 「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」고 응답한 경우는 43.2%로 나타났음

### <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>

(단위 : %, 회, 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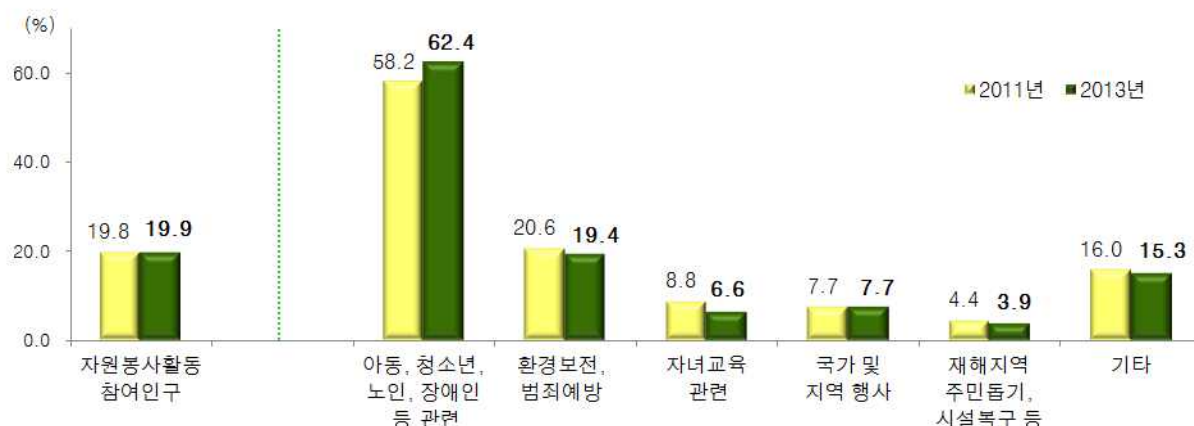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|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|             |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 |             |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있음          | 없음          | 평균 횟수            | 평균 시간       | 있음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9.8        | 80.2        | 7.1              | 24.7        | 45.6          | 54.4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9.9</b> | <b>80.1</b> | <b>7.6</b>       | <b>25.1</b> | <b>43.2</b>   | <b>56.8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9.9        | 80.1        | 7.7              | 25.3        | 44.4          | 55.6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9.8        | 80.2        | 7.0              | 24.1        | 37.8          | 62.2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9.6        | 80.4        | 6.7              | 23.7        | 42.5          | 57.5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20.1        | 79.9        | 8.4              | 26.4        | 44.0          | 56.0        |
| 13 ~ 19세     | 80.1        | 19.9        | 5.4              | 16.4        | 77.4          | 22.6        |
| 20 ~ 29세     | 13.7        | 86.3        | 7.4              | 28.7        | 52.3          | 47.7        |
| 30 ~ 39세     | 11.2        | 88.8        | 7.6              | 27.3        | 45.1          | 54.9        |
| 40 ~ 49세     | 17.3        | 82.7        | 9.3              | 30.5        | 46.2          | 53.8        |
| 50 ~ 59세     | 14.5        | 85.5        | 9.7              | 33.4        | 39.1          | 60.9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7.8         | 92.2        | 12.3             | 39.5        | 17.3          | 82.7        |

## 25.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

자원봉사는 주로 「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과 관련 분야(62.4%)」에서

■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야는 「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(62.4%)」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「환경보전·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분야(19.4%)」가 다음으로 나타났음

- 「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」에 이어서, 10대와 50대 이상은 「환경보전·범죄예방 관련분야」에 많이 참여하였고, 20대는 「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분야」, 그리고 30~40대는 「자녀교육 관련분야」에 많이 참여하였음



<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아동, 청소년<br>노인, 장애인 | 환경보전<br>범죄예방 | 자녀교육<br>관련 | 국가 및<br>지역행사 | 재해지역<br>주민돕기 및<br>시설복구 | 기 타<br>(무료상담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| 58.2               | 20.6         | 8.8        | 7.7          | 4.4                    | 16.0          |
| 2013년    | 62.4               | 19.4         | 6.6        | 7.7          | 3.9                    | 15.3 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| 65.2               | 16.4         | 6.9        | 7.5          | 3.7                    | 15.5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| 49.2               | 33.7         | 5.1        | 8.4          | 5.0                    | 14.2          |
| 남 자      | 60.0               | 23.9         | 1.8        | 8.6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     | 15.4          |
| 여 자      | 64.7               | 15.1         | 11.1       | 6.8          | 2.7                    | 15.1          |
| 13 ~ 19세 | 68.4               | 18.0         | -          | 6.3          | 0.8                    | 23.6          |
| 20 ~ 29세 | 73.8               | 8.1          | 0.5        | 10.1         | 5.9                    | 11.5          |
| 30 ~ 39세 | 59.5               | 13.2         | 21.0       | 6.3          | 6.5                    | 6.4           |
| 40 ~ 49세 | 53.1               | 18.2         | 22.8       | 9.1          | 5.2                    | 8.4           |
| 50 ~ 59세 | 56.8               | 26.9         | 3.6        | 9.9          | 7.6                    | 10.7          |
| 60세 이상   | 48.2               | 40.7         | 1.0        | 7.3          | 5.3                    | 9.2           |

## 26.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

### 절반 이상이 「직장·학교(53.1%)」를 통해 인지

■ 자원봉사활동을 알게 된 경로는 「직장·학교」가 53.1%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서 「가족, 친구 및 동료의 권유(19.7%)」, 「종교단체(11.6%)」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○ 40대 이하는 대체로 「직장·학교」를 통해 알게 되었고, 50대 이상은 주로 「종교단체」, 「가족, 친구 및 동료의 권유」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



### <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언론매체 | 종교단체 | 직장, 학교 | 시설, 단체의<br>직접 홍보 | 가족, 친구 및<br>동료의 권유 | 인터넷  | 기타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2011년     | 100.0           | 3.3  | 12.1 | 52.4   | 8.0              | 20.0               | 3.1  | 1.1 |
| 2013년     | 100.0           | 2.8  | 11.6 | 53.1   | 8.1              | 19.7               | 3.9  | 0.8 |
| 도 시 (동 부) | 100.0           | 2.9  | 12.4 | 54.9   | 7.1              | 18.0               | 4.4  | 0.3 |
| 농어촌 (읍면부) | 100.0           | 2.4  | 7.6  | 44.7   | 12.9             | 27.7               | 1.7  | 3.0 |
| 남 자       | 100.0           | 3.2  | 8.2  | 57.6   | 7.6              | 19.5               | 2.9  | 0.9 |
| 여 자       | 100.0           | 2.4  | 14.8 | 48.8   | 8.6              | 19.8               | 4.9  | 0.7 |
| 13 ~ 19세  | 100.0           | 1.2  | 2.2  | 70.2   | 1.9              | 19.6               | 4.9  | 0.0 |
| 20 ~ 29세  | 100.0           | 2.9  | 9.1  | 58.2   | 4.8              | 12.5               | 11.4 | 1.1 |
| 30 ~ 39세  | 100.0           | 3.9  | 13.5 | 60.7   | 5.8              | 12.8               | 3.0  | 0.3 |
| 40 ~ 49세  | 100.0           | 4.1  | 17.7 | 45.9   | 10.6             | 19.3               | 1.9  | 0.5 |
| 50 ~ 59세  | 100.0           | 4.1  | 24.9 | 23.6   | 20.4             | 24.4               | 0.4  | 2.1 |
| 60세 이상    | 100.0           | 4.9  | 28.0 | 7.6    | 23.8             | 31.5               | 0.5  | 3.7 |

주: 1)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

## 27.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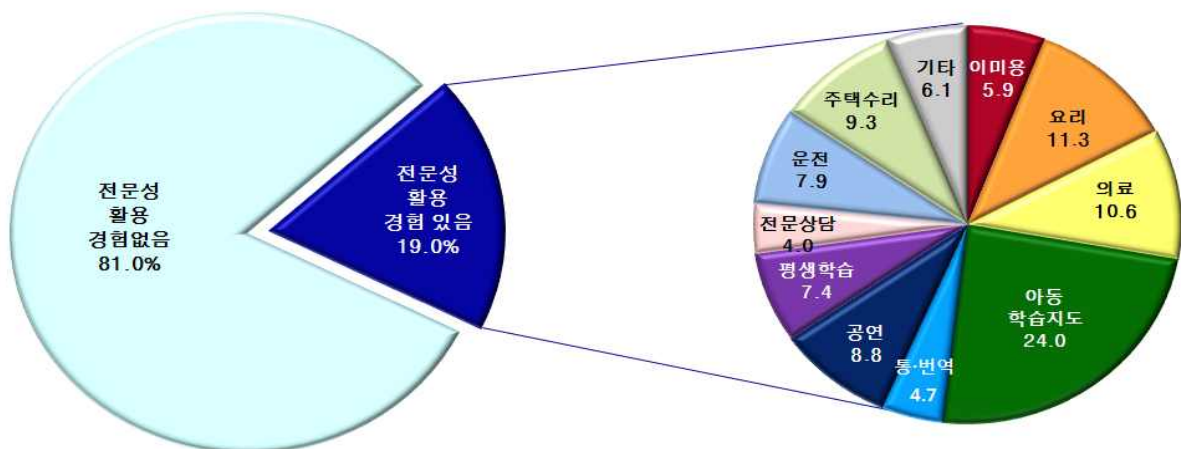
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중에는 「아동학습지도(24.0%)」가 가장 많아

■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가 19.0%로 나타났음

○ 농어촌(읍면부)지역보다는 도시(동부)지역이,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음

■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중 「아동학습지도」가 24.0%로 가장 많음

○ 여자는 「아동학습지도」를 위해, 남자는 「주택수리」에 각각 전문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음



### <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활용<br>경험<br>있음 | 전문성 활용분야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소개       | 이·미용 | 요리   | 의료   | 아동학<br>습지도 | 통역·<br>번역 | 공연  | 평생학<br>습관련 | 전문<br>상담 | 운동   | 주택<br>수리 | 기타  |
| 2011년    | 100.0           | 15.9           | 100.0    | 4.6  | 9.7  | 11.6 | 24.1       | 2.8       | 9.1 | 7.7        | 5.0      | 9.6  | 10.1     | 5.7 |
| 2013년    | 100.0           | 19.0           | 100.0    | 5.9  | 11.3 | 10.6 | 24.0       | 4.7       | 8.8 | 7.4        | 4.0      | 7.9  | 9.3      | 6.1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          | 20.0           | 100.0    | 5.4  | 11.4 | 10.7 | 25.1       | 4.7       | 8.8 | 7.8        | 4.1      | 7.2  | 8.9      | 5.9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          | 14.4           | 100.0    | 9.0  | 10.6 | 9.9  | 17.0       | 4.6       | 8.8 | 4.8        | 3.5      | 12.7 | 11.5     | 7.7 |
| 남 자      | 100.0           | 17.1           | 100.0    | 2.8  | 7.0  | 9.0  | 15.7       | 4.6       | 8.1 | 8.0        | 5.1      | 13.7 | 19.0     | 7.0 |
| 여 자      | 100.0           | 20.8           | 100.0    | 8.3  | 14.5 | 11.8 | 30.6       | 4.7       | 9.3 | 7.0        | 3.1      | 3.4  | 1.7      | 5.5 |

주: 1)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

## 28. 계층의식 (가구주)

**가구주의 51.4%가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를 「중간층」 이라고 생각**  
**- 상층은 1.9%, 하층은 46.7%**

■ 2013년 가구주의 소득, 직업, 교육,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「상층」 1.9%, 「중간층」 51.4%, 「하층」 46.7%로 나타남

○ 성별로 보면, 남자 가구주는 자신이 「상층」 2.2%, 「중간층」 56.4%, 「하층」 41.4%이라고 생각

○ 반면, 여자가구주의 10명중 6명은 본인이 「하층」 이라고 생각함

■ 2011년과 비교해 보면, 「중간층」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각각 1.4%p, 감소한 반면, 「하층」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.4%p 증가하였음

### < 계층의식 (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상          | 상          | 하          | 중           | 상           | 하           | 하           | 상           | 하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1.9        | 0.5        | 1.4        | 52.8        | 18.0        | 34.8        | 45.3        | 26.3        | 19.0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1.9</b> | <b>0.4</b> | <b>1.5</b> | <b>51.4</b> | <b>17.7</b> | <b>33.7</b> | <b>46.7</b> | <b>26.3</b> | <b>20.4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2.0        | 0.4        | 1.6        | 52.5        | 18.1        | 34.4        | 45.5        | 25.8        | 19.7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1.4        | 0.5        | 0.9        | 46.6        | 15.9        | 30.7        | 52.0        | 28.6        | 23.4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.2        | 0.5        | 1.7        | 56.4        | 19.8        | 36.6        | 41.4        | 25.4        | 16.0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0.9        | 0.2        | 0.8        | 36.8        | 11.3        | 25.4        | 62.3        | 29.0        | 33.4        |
| 100만원 미만     | 100.0        | 0.5        | 0.1        | 0.3        | 22.7        | 5.2         | 17.5        | 76.8        | 30.1        | 46.7        |
| 100~2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0.5        | 0.1        | 0.4        | 38.9        | 9.0         | 29.9        | 60.7        | 35.8        | 24.8        |
| 200~3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1.0        | 0.3        | 0.7        | 56.3        | 13.8        | 42.5        | 42.7        | 30.4        | 12.3        |
| 300~4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1.7        | 0.3        | 1.4        | 68.9        | 23.2        | 45.6        | 29.4        | 22.7        | 6.8         |
| 400~5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2.4        | 0.1        | 2.2        | 80.3        | 32.1        | 48.3        | 17.3        | 13.1        | 4.2         |
| 500~6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3.7        | 0.8        | 2.8        | 87.0        | 44.7        | 42.3        | 9.4         | 7.0         | 2.4         |
| 600만원 이상     | 100.0        | 13.4       | 2.9        | 10.5       | 78.9        | 54.7        | 24.2        | 7.7         | 6.4         | 1.3         |

## 29. 본인세대 및 다음세대 계층이동 (가구주)

**가구주 본인세대의 지위향상에는 부정적, 자식세대의 지위향상에는 긍정적**

-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'높다'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8.2%인 반면, '낮다'고 생각하는 비율은 57.9%로 나타났다
- 한편,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'높다'고 응답한 비율이 39.9%로 현재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함
- 2011년과 비교하면,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'높다'라고 생각하는 경우 「본인세대」와 「다음세대」 각각 0.6%p, 1.8%p 감소
-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'높다'고 생각함

### < 본인세대 계층이동 (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|    | 계     | 높다   |      |      | 낮다   |      |      | 모르겠다 |
|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   |       |      | 매우   | 비교적  |      | 비교적  | 매우   |      |
| 2011년 |    | 100.0 | 28.8 | 2.1  | 26.7 | 58.7 | 42.9 | 15.9 | 12.5 |
| 2013년 |    | 100.0 | 28.2 | 2.2  | 26.0 | 57.9 | 40.4 | 17.5 | 13.9 |
| 계층의식  | 상층 | 100.0 | 69.2 | 13.7 | 55.5 | 23.8 | 19.2 | 4.6  | 7.0  |
|       | 중층 | 100.0 | 36.9 | 2.6  | 34.3 | 54.6 | 44.9 | 9.7  | 8.5  |
|       | 하층 | 100.0 | 16.9 | 1.3  | 15.7 | 63.0 | 36.3 | 26.7 | 20.1 |

### < 다음세대 계층이동 (19세 이상 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|    | 계     | 높다   |      |      | 낮다   |      |      | 모르겠다 |
|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   |       |      | 매우   | 비교적  |      | 비교적  | 매우   |      |
| 2011년 |    | 100.0 | 41.7 | 4.0  | 37.7 | 42.9 | 33.4 | 9.6  | 15.4 |
| 2013년 |    | 100.0 | 39.9 | 3.6  | 36.3 | 43.7 | 34.0 | 9.8  | 16.4 |
| 계층의식  | 상층 | 100.0 | 62.8 | 13.2 | 49.7 | 28.6 | 21.8 | 6.8  | 8.5  |
|       | 중층 | 100.0 | 47.2 | 4.3  | 43.0 | 42.1 | 35.3 | 6.9  | 10.6 |
|       | 하층 | 100.0 | 30.9 | 2.4  | 28.4 | 46.1 | 33.0 | 13.1 | 23.0 |

### Ⅲ. 문화와 여가

#### 30. 신문 인구

**신문 보는 비율은 72.6%, 일반신문(56.4%)보다 인터넷신문(81.5%)이 많아**

-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2.6%로 2011년 75.6%에 비해 3.0%p 감소하였음
  - 성별로는 남자(79.5%)가 여자(65.8%)보다 높게 나타남
  - 인터넷 신문의 경우, 상대적으로 농어촌(읍면부)지역보다 도시(동부)지역에서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
  -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신문을 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신문보는 빈도는 일반신문의 경우 「거의 매일」 보는 사람이 38.9%, 「1주일에 1~2회」 25.2%, 「1주일에 3~4회」 20.2%로 나타남
  - 인터넷신문은 「거의 매일」 보는 사람이 53.7%, 「1주일에 3~4회」 22.2%임

#### < 신문 인구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| 신문 <sup>1)</sup><br>보는<br>인구 | 일반<br>신문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인터넷<br>신문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| 거의<br>매일 | 1주에<br>3~4회 | 1주에<br>1~2회 | 2주에<br>1회 | 소계   | 거의<br>매일  | 1주에<br>3~4회 | 1주에<br>1~2회 | 2주에<br>1회 |      |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| 75.6                         | 67.8     | 100.0    | 39.6        | 19.5        | 25.3      | 15.7 | 77.9      | 100.0       | 48.3        | 23.2      | 20.0 | 8.6 |
| 2013년        | 100.0 | 72.6                         | 56.4     | 100.0    | 38.9        | 20.2        | 25.2      | 15.7 | 81.5      | 100.0       | 53.7        | 22.2      | 17.1 | 7.0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| 75.7                         | 56.6     | 100.0    | 40.2        | 20.0        | 24.3      | 15.4 | 82.1      | 100.0       | 54.3        | 21.9      | 16.7 | 7.0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| 57.7                         | 55.5     | 100.0    | 30.6        | 21.5        | 30.3      | 17.5 | 77.4      | 100.0       | 49.3        | 23.8      | 20.2 | 6.7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| 79.5                         | 61.9     | 100.0    | 43.6        | 20.1        | 22.6      | 13.7 | 80.6      | 100.0       | 59.1        | 20.3      | 14.8 | 5.8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| 65.8                         | 50.0     | 100.0    | 32.2        | 20.3        | 28.9      | 18.6 | 82.5      | 100.0       | 47.4        | 24.4      | 19.9 | 8.3 |
| 100만원 미만     | 100.0 | 38.6                         | 58.3     | 100.0    | 31.8        | 19.1        | 27.2      | 22.0 | 66.3      | 100.0       | 48.8        | 22.0      | 20.1 | 9.1 |
| 100~200만원 미만 | 100.0 | 63.8                         | 54.1     | 100.0    | 32.6        | 21.3        | 27.1      | 19.0 | 75.7      | 100.0       | 46.5        | 24.7      | 20.0 | 8.9 |
| 200~300만원 미만 | 100.0 | 76.5                         | 52.1     | 100.0    | 35.9        | 21.1        | 26.4      | 16.6 | 82.8      | 100.0       | 51.2        | 22.8      | 18.5 | 7.5 |
| 300~400만원 미만 | 100.0 | 83.1                         | 55.8     | 100.0    | 40.2        | 21.0        | 25.1      | 13.7 | 84.9      | 100.0       | 55.1        | 22.1      | 15.9 | 7.0 |
| 400~500만원 미만 | 100.0 | 87.2                         | 58.1     | 100.0    | 41.9        | 19.8        | 24.1      | 14.2 | 85.1      | 100.0       | 56.8        | 21.7      | 15.6 | 6.0 |
| 500~600만원 미만 | 100.0 | 89.1                         | 62.8     | 100.0    | 45.3        | 19.8        | 21.7      | 13.2 | 84.8      | 100.0       | 59.9        | 20.3      | 15.0 | 4.8 |
| 600만원 이상     | 100.0 | 90.9                         | 63.4     | 100.0    | 49.4        | 16.8        | 22.2      | 11.6 | 86.5      | 100.0       | 62.3        | 19.2      | 13.9 | 4.6 |

주 : 1)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

## 31. 독서 인구

**독서 인구 비율은 62.4%, 독서량은 1인당 17.9권**

■ 지난 1년 동안 독서 인구 비율은 62.4%로 나타났으며,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7.9권으로 나타남

- 성별로는 여자의 독서 인구 비율이 63.3%로 남자의 독서 인구 비율 61.5%보다 높게 나타남
-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80.9%로 가장 높았고,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인구 비율과 독서권수가 감소함

■ 서적종류별로 독서 비율을 보면, 「교양서적」이 68.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은 「잡지류」 42.9%, 「직업서적」 33.9%, 「생활·취미·정보서적」 25.5% 순임

- 「교양서적」에 이어 남자는 「직업서적」을, 여자는 「잡지류」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남

### < 독서 인구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, 권)

|        | 계     | 독서<br>인구 | 잡지류  | 독서<br>권수 | 교양<br>서적 | 독서<br>권수 | 직업<br>서적 | 독서<br>권수 | 생활,<br>취미,<br>정보<br>서적 | 독서<br>권수 | 기타   | 독서<br>권수 | 독서 <sup>1)</sup><br>권수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| 100.0 | 61.8     | 47.9 | 7.5      | 70.6     | 10.3     | 37.0     | 7.6      | 29.1                   | 5.2      | 21.8 | 25.4     | 20.8                   |
| 2013년  | 100.0 | 62.4     | 42.9 | 6.6      | 68.9     | 9.3      | 33.9     | 7.3      | 25.5                   | 5.4      | 19.6 | 24.6     | 17.9                   |
| 남 자    | 100.0 | 61.5     | 38.2 | 7.2      | 64.0     | 9.5      | 41.8     | 7.6      | 22.3                   | 5.7      | 25.9 | 28.7     | 20.7                   |
| 여 자    | 100.0 | 63.3     | 47.2 | 6.0      | 73.5     | 9.1      | 26.5     | 6.9      | 28.5                   | 5.1      | 13.6 | 17.3     | 15.2                   |
| 13~19세 | 100.0 | 80.9     | 32.6 | 6.7      | 75.2     | 13.9     | 17.5     | 7.4      | 16.8                   | 6.9      | 45.7 | 21.2     | 24.7                   |
| 20~29세 | 100.0 | 79.8     | 47.5 | 7.0      | 72.5     | 8.6      | 45.0     | 7.3      | 28.2                   | 5.4      | 27.2 | 26.5     | 21.6                   |
| 30~39세 | 100.0 | 75.8     | 44.7 | 6.1      | 63.5     | 8.3      | 43.4     | 7.2      | 37.7                   | 5.7      | 21.2 | 27.8     | 19.2                   |
| 40~49세 | 100.0 | 69.5     | 44.4 | 6.7      | 68.6     | 9.8      | 37.9     | 7.6      | 24.1                   | 4.8      | 11.0 | 27.6     | 16.8                   |
| 50~59세 | 100.0 | 52.4     | 45.4 | 6.7      | 65.7     | 7.4      | 28.0     | 7.1      | 19.8                   | 4.2      | 6.3  | 16.1     | 11.7                   |
| 60세 이상 | 100.0 | 28.9     | 36.1 | 6.1      | 70.8     | 7.3      | 12.2     | 7.5      | 15.4                   | 5.2      | 2.7  | 13.6     | 9.5                    |

주 : 1)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

## 32. 레저시설 이용 인구

**레저시설 이용 인구는 71.4%, 주로 「관광명소(71.4%)」를 이용**

■ 지난 1년(2012. 5. 11.~2013. 5. 10.) 동안 관광명소, 온천장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71.4%로 2011년 65.8%에 비해 5.6%p 증가함

- 각 레저시설별 이용자 비율을 보면 「관광명소(71.4%)」가 가장 높고, 「해수욕장(34.7%)」, 「놀이공원(32.7%)」, 「온천장(31.2%)」의 순임
- 2011년에 비해 「관광명소」, 「산림욕장」의 이용률은 증가한 반면, 「온천장」, 「골프장」, 「스키장」, 「놀이공원」, 「수영장」 등의 이용은 감소함
-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레저시설 이용률이 72.6%로 농어촌지역 66.0%보다 높았음
-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의 레저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

### < 레저시설 이용 인구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이용합         | 관광<br>명소    | 온천장         | 골프장        | 스키장         | 해수<br>욕장    | 산림<br>욕장    | 놀이<br>공원    | 수영장<br>(워터<br>파크) | 기타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65.8        | 65.0        | 31.5        | 6.1        | 13.2        | 34.7        | 29.1        | 34.3        | 26.8              | 0.6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71.4</b> | <b>71.4</b> | <b>31.2</b> | <b>5.8</b> | <b>12.8</b> | <b>34.7</b> | <b>29.4</b> | <b>32.7</b> | <b>25.4</b>       | <b>0.4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72.6        | 70.9        | 31.3        | 6.3        | 13.4        | 35.7        | 30.5        | 34.3        | 27.0              | 0.4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66.0        | 74.2        | 30.9        | 3.3        | 9.5         | 29.5        | 23.3        | 24.4        | 17.0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70.7        | 70.5        | 29.0        | 8.9        | 15.4        | 36.3        | 29.1        | 31.8        | 25.0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72.2        | 72.3        | 33.3        | 2.8        | 10.4        | 33.2        | 29.7        | 33.5        | 25.7              | 0.3        |
| 13~19세       | 100.0        | 77.2        | 59.5        | 19.0        | 1.5        | 15.3        | 36.2        | 17.4        | 55.6        | 35.0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20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79.2        | 64.5        | 25.2        | 2.1        | 24.5        | 49.0        | 24.0        | 45.7        | 35.6              | 0.2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82.9        | 68.9        | 34.9        | 4.9        | 17.9        | 45.0        | 35.1        | 50.6        | 40.3              | 0.7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74.1        | 73.4        | 33.7        | 11.0       | 12.1        | 37.5        | 36.5        | 29.2        | 25.5              | 0.5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66.2        | 79.2        | 33.6        | 9.5        | 4.3         | 22.0        | 33.7        | 9.0         | 7.5               | 0.2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53.9        | 80.3        | 35.9        | 3.1        | 1.0         | 13.2        | 21.9        | 6.1         | 5.0               | 0.2        |

### 33.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

**관람비율은 63.4%, 관람횟수는 평균 8.9회, 「영화관람」이 적다**

- 지난 1년(2012. 5. 11.~2013. 5. 10.)동안 공연,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63.4%로 2011년 58.6%보다 4.8%p 증가함
  - 관람 내용으로는 「영화관람(85.9%)」이 가장 많았으며, 「박물관 관람(25.8%)」, 「연극·뮤지컬(24.2%)」 순임
  - 연령별로는 20대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이 86.4%로 가장 높음
  -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평균 관람횟수는 8.9회로 2011년 8.4회보다 증가함

<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, 회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관람함         |            | 음 악<br>· 연주회 |            | 연 극<br>· 뮤지컬 |            | 무용         |            | 영화          |            | 박물관         |            | 미술관         |            | 스포츠<br>관 람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인원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| 횟수         | 인원          | 횟수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58.6        | 8.4        | 25.2         | 2.5        | 25.0         | 2.3        | 2.6        | 2.6        | 81.8        | 6.1        | 26.4        | 2.5        | 20.7        | 2.4        | 24.3        | 4.1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63.4</b> | <b>8.9</b> | <b>21.7</b>  | <b>2.5</b> | <b>24.2</b>  | <b>2.4</b> | <b>2.4</b> | <b>3.4</b> | <b>85.9</b> | <b>6.5</b> | <b>25.8</b> | <b>2.6</b> | <b>19.4</b> | <b>2.5</b> | <b>22.0</b> | <b>4.1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67.1        | 9.0        | 21.9         | 2.5        | 24.6         | 2.4        | 2.5        | 3.4        | 86.8        | 6.6        | 25.5        | 2.6        | 19.9        | 2.5        | 22.4        | 4.1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45.9        | 7.7        | 20.0         | 2.3        | 21.4         | 2.1        | 1.5        | 4.1        | 79.8        | 6.1        | 28.1        | 2.6        | 16.4        | 2.5        | 19.5        | 3.9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63.0        | 8.7        | 18.2         | 2.6        | 18.9         | 2.3        | 1.8        | 3.6        | 83.6        | 6.4        | 24.2        | 2.6        | 15.9        | 2.4        | 31.6        | 4.4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63.8        | 9.0        | 25.0         | 2.4        | 29.2         | 2.5        | 3.0        | 3.3        | 88.1        | 6.6        | 27.3        | 2.7        | 22.8        | 2.6        | 12.8        | 3.4        |
| 13~19세       | 100.0        | 86.1        | 8.7        | 22.0         | 2.3        | 24.7         | 1.9        | 3.5        | 3.7        | 88.4        | 6.6        | 25.8        | 2.4        | 18.2        | 1.9        | 20.7        | 3.8        |
| 20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86.4        | 11.9       | 22.2         | 2.6        | 30.9         | 2.8        | 2.6        | 3.2        | 91.8        | 8.8        | 21.1        | 2.6        | 21.4        | 2.7        | 27.1        | 4.5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79.9        | 9.5        | 18.2         | 2.5        | 26.4         | 2.7        | 2.3        | 3.3        | 88.4        | 6.8        | 28.8        | 3.0        | 21.1        | 2.5        | 22.9        | 3.9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70.5        | 8.1        | 21.1         | 2.4        | 19.9         | 2.1        | 2.2        | 3.4        | 88.0        | 5.7        | 27.6        | 2.6        | 18.8        | 2.4        | 22.0        | 3.9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50.7        | 6.3        | 23.7         | 2.5        | 18.8         | 2.1        | 1.5        | 2.7        | 80.0        | 4.5        | 23.1        | 2.5        | 17.6        | 2.6        | 17.8        | 3.8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23.0        | 6.0        | 27.9         | 2.6        | 20.8         | 2.1        | 2.4        | 5.1        | 60.6        | 4.4        | 29.4        | 2.5        | 16.4        | 3.0        | 15.7        | 4.9        |

### 34.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

주말·휴일의 여가는 주로 「TV 및 DVD 시청(59.9%)」

■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는 「TV 및 DVD 시청」이 59.9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「휴식」 37.5%, 「가사일」 28.2% 순임

- 남자의 경우, 여가활동 방법은 「TV 및 DVD 시청」, 「휴식」, 「컴퓨터 게임 등」 순인 반면, 여자는 「TV 및 DVD 시청」, 「가사일」, 「휴식」 순임
- 연령별로 여가활동 특성을 보면, 「TV 및 DVD 시청」은 휴식과 함께 전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, 「컴퓨터 게임」은 연령대가 낮을수록, 종교활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



<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TV 및 DVD 시청 | 여행   | 문화 예술 관람 | 스포츠 활동 | 컴퓨터 게임 등 | 창작적 취미 | 자기 개발 | 종교 활동 | 가사일  | 휴식   | 사회 관련일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2011년    | 63.0        | 10.0 | 9.8      | 10.2   | 17.2     | 4.5    | 5.8   | 13.9  | 28.6 | 36.8 | 20.2   |
| 2013년    | 59.9        | 12.1 | 10.7     | 9.9    | 14.3     | 4.0    | 5.6   | 13.1  | 28.2 | 37.5 | 20.9   |
| 도시(동부)   | 59.7        | 12.6 | 11.5     | 10.4   | 15.2     | 4.2    | 6.1   | 13.2  | 28.1 | 37.6 | 21.6   |
| 농어촌(읍면부) | 60.6        | 9.5  | 7.3      | 7.7    | 10.4     | 3.3    | 3.4   | 12.2  | 29.0 | 37.0 | 17.3   |
| 남자       | 61.5        | 13.8 | 9.4      | 15.8   | 20.1     | 3.4    | 6.3   | 9.8   | 13.4 | 39.6 | 19.9   |
| 여자       | 58.3        | 10.4 | 12.0     | 4.2    | 8.8      | 4.6    | 5.0   | 16.3  | 42.6 | 35.5 | 21.8   |
| 13~19세   | 61.4        | 3.9  | 14.8     | 13.2   | 48.7     | 8.2    | 16.3  | 8.5   | 2.8  | 30.7 | 29.8   |
| 20~29세   | 53.7        | 10.9 | 21.7     | 9.7    | 26.9     | 6.2    | 12.9  | 7.9   | 14.6 | 36.0 | 32.9   |
| 30~39세   | 56.2        | 19.7 | 15.1     | 8.4    | 13.9     | 3.6    | 4.3   | 10.4  | 37.3 | 38.6 | 21.3   |
| 40~49세   | 58.2        | 15.5 | 10.4     | 13.0   | 8.2      | 3.8    | 3.8   | 14.1  | 36.3 | 41.6 | 16.7   |
| 50~59세   | 59.3        | 13.1 | 4.9      | 11.7   | 4.5      | 2.7    | 1.8   | 16.9  | 33.5 | 38.8 | 17.0   |
| 60세 이상   | 69.4        | 5.9  | 1.8      | 5.0    | 1.9      | 1.8    | 0.9   | 17.4  | 31.0 | 35.9 | 14.2   |

### 35.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

#### 여가활동 대상은 주로 「가족」

■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「가족」과 함께 보내는 사람의 비율이 54.4%로 가장 높고, 다음은 「친구」 20.3%, 「혼자서」 19.5%의 순임

- 지역별로 보면, 「가족」에 이어 도시지역은 「친구(연인)」, 농어촌지역은 「혼자서」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음
-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경우 「친구」와 주로 여가를 보내며, 30대 이후로는 「가족」 비율이 제일 높음
  - 또한 40대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「가족」과 함께 보내는 비율이 낮아지고, 대신 「혼자서」 보내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



#### <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가족   | 친구(연인) | 동호회<br>(종교단체 등) | 혼자서  | 기 타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56.9 | 20.6   | 5.4             | 16.8 | 0.2 |
| 2013년    | 100.0 | 54.4 | 20.3   | 5.7             | 19.5 | 0.1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54.3 | 21.2   | 5.7             | 18.7 | 0.1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54.7 | 16.0   | 5.8             | 23.4 | 0.2 |
| 13 ~ 19세 | 100.0 | 33.0 | 46.0   | 1.6             | 19.3 | 0.1 |
| 20 ~ 29세 | 100.0 | 27.9 | 50.8   | 3.8             | 17.4 | 0.1 |
| 30 ~ 39세 | 100.0 | 69.6 | 16.1   | 3.7             | 10.5 | 0.0 |
| 40 ~ 49세 | 100.0 | 68.3 | 8.1    | 7.1             | 16.4 | 0.1 |
| 50 ~ 59세 | 100.0 | 59.3 | 10.2   | 8.3             | 22.0 | 0.2 |
| 60세 이상   | 100.0 | 53.2 | 8.5    | 7.6             | 30.5 | 0.2 |

## 36.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

###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「여행」

■ 앞으로 시간적,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「여행(46.9%)」 이었고, 다음은 「문화예술관람(9.0%)」, 「스포츠 활동(8.4%)」, 「자기개발(6.3%)」 순임
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여가시간에 「여행」과 「스포츠 활동」을, 여자는 「여행」과 「문화예술관람」을 희망함
- 연령별로 「여행」 이외의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, 10대와 30대는 「문화예술관람」, 20대는 「자기개발」, 40대와 50대는 「스포츠 활동」, 60세 이상은 「사교 관련일」을 각각 원함
- 한편, 연령이 높아질수록 「종교 활동」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증가함

### <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여행   | 문화<br>예술<br>관람 | 스포츠<br>활동 | 창작적<br>취미 | 자기<br>개발 | 종교<br>활동 | 휴식  | 사교<br>관련일 | 기타 <sup>1)</sup>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43.4 | 9.5            | 8.1       | 4.5       | 7.1      | 4.1      | 4.4 | 4.8       | 14.0             |
| 2013년    | 100.0 | 46.9 | 9.0            | 8.4       | 4.3       | 6.3      | 3.5      | 3.8 | 5.2       | 12.6    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46.8 | 9.4            | 8.7       | 4.6       | 6.6      | 3.4      | 3.6 | 4.7       | 12.2   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47.4 | 7.2            | 6.8       | 3.3       | 4.6      | 4.3      | 5.0 | 7.2       | 14.4             |
| 남 자      | 100.0 | 47.8 | 5.9            | 12.8      | 3.0       | 5.9      | 2.4      | 3.5 | 4.4       | 14.4             |
| 여 자      | 100.0 | 46.1 | 12.0           | 4.0       | 5.7       | 6.7      | 4.7      | 4.2 | 5.9       | 10.9             |
| 13 ~ 19세 | 100.0 | 26.5 | 16.7           | 10.2      | 6.0       | 7.3      | 0.7      | 3.5 | 8.4       | 20.9             |
| 20 ~ 29세 | 100.0 | 43.6 | 12.0           | 8.8       | 5.5       | 12.2     | 1.7      | 2.7 | 4.0       | 9.4              |
| 30 ~ 39세 | 100.0 | 52.0 | 10.3           | 9.6       | 4.5       | 8.6      | 1.7      | 3.2 | 1.9       | 8.2              |
| 40 ~ 49세 | 100.0 | 51.2 | 9.2            | 11.7      | 4.2       | 6.5      | 3.0      | 3.0 | 2.6       | 8.7              |
| 50 ~ 59세 | 100.0 | 54.4 | 6.4            | 7.8       | 4.4       | 3.4      | 4.6      | 3.3 | 4.1       | 11.5             |
| 60세 이상   | 100.0 | 44.6 | 3.5            | 3.0       | 2.6       | 1.5      | 7.7      | 6.8 | 10.9      | 19.4             |

주 : 1) 기타에는 TV 시청, 스포츠 관람, 컴퓨터게임, 봉사활동, 가사일 포함

### 37.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

**25.1%가 여가활동에 「불만족」, 주된 이유는 「경제적 부담(57.7%)」**

■ 평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「만족」 27.1%, 「보통」 47.8%, 「불만족」 25.1%로 나타남

○ 「불만족」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,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음

■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「경제적 부담(57.7%)」 과 「시간부족(21.1%)」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

○ 가구 소득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면, 소득이 높을수록 「시간부족」의 비율이 높고, 소득이 낮을수록 「경제적 부담」의 비율이 높았음

#### <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만족          | 보통          | 불만족         | 소계           | 경제적 부담      | 시간 부족       | 교통 혼잡 및 불편 | 여가시설 및 정보부족 | 적당한 취미 없음  |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않음 | 여가를 함께할 사람없음 | 기타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19.3        | 48.6        | 32.1        | 100.0        | 60.9        | 23.2        | 1.0        | 2.9         | 3.4        | 6.8           | 1.6          | 0.3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27.1</b> | <b>47.8</b> | <b>25.1</b> | <b>100.0</b> | <b>57.7</b> | <b>21.1</b> | <b>1.6</b> | <b>3.0</b>  | <b>4.7</b> | <b>9.3</b>    | <b>2.3</b>   | <b>0.2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27.8        | 47.6        | 24.6        | 100.0        | 59.9        | 20.7        | 1.6        | 2.7         | 4.9        | 7.8           | 2.1          | 0.2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23.8        | 48.9        | 27.3        | 100.0        | 48.3        | 22.7        | 1.9        | 3.9         | 4.0        | 15.7          | 3.3          | 0.2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8.4        | 47.9        | 23.8        | 100.0        | 59.3        | 21.5        | 1.6        | 2.7         | 5.3        | 6.9           | 2.4          | 0.3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5.8        | 47.8        | 26.4        | 100.0        | 56.4        | 20.8        | 1.7        | 3.2         | 4.2        | 11.4          | 2.2          | 0.1        |
| 100만원 미만     | 100.0        | 16.1        | 47.3        | 36.6        | 100.0        | 65.3        | 4.9         | 0.6        | 1.1         | 2.5        | 22.4          | 3.2          | 0.0        |
| 100~2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19.4        | 49.1        | 31.5        | 100.0        | 67.0        | 15.5        | 1.2        | 2.7         | 4.0        | 7.4           | 2.1          | 0.1        |
| 200~3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24.9        | 49.7        | 25.4        | 100.0        | 59.8        | 24.0        | 1.6        | 2.9         | 4.8        | 4.8           | 1.8          | 0.3        |
| 300~4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30.4        | 50.2        | 19.4        | 100.0        | 52.8        | 27.3        | 2.3        | 4.7         | 5.5        | 4.7           | 2.5          | 0.2        |
| 400~5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34.8        | 46.2        | 18.9        | 100.0        | 40.5        | 39.2        | 3.5        | 3.4         | 6.7        | 4.7           | 1.2          | 0.8        |
| 500~6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39.8        | 44.1        | 16.0        | 100.0        | 34.5        | 40.3        | 3.8        | 4.2         | 8.3        | 4.9           | 3.9          | -          |
| 600만원 이상     | 100.0        | 45.6        | 40.1        | 14.3        | 100.0        | 24.2        | 48.0        | 1.9        | 6.6         | 10.2       | 6.8           | 2.1          | 0.3        |

### 38. 국내 관광여행 비율 및 횟수

**국내 관광여행 경험자는 67.1%, 1인당 3.1회**

■ 지난 1년(2012. 5. 11. ~ 2013. 5. 10.) 동안 67.1%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하였으며, 이는 2011년 63.2%보다 3.9%p 증가하였음

- 성별로 보면, 여자(68.5%)가 남자(65.7%)보다 국내여행을 많이 하였음
-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국내 여행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
■ 여행을 「숙박」과 「당일」로 구분하면, 13세 이상 인구의 46.8%는 숙박여행을, 45.4%는 당일여행을 하였음

-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미만'인 경우는 1인당 숙박여행 횟수가 채 1회를 못 넘기는 것으로 나타남

**< 국내 관광여행 비율 및 횟수 (복수응답) >**

(단위 : %, 회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국내<br>관광<br>여행자 | 13세 이상<br>인구1인당<br>여행횟수 | 숙<br>여<br>박<br>행 | 13세 이상<br>인구1인당<br>여행횟수 | 당<br>여<br>일<br>행 | 13세 이상<br>인구1인당<br>여행횟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63.2            | 2.8                     | 45.1   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    | 41.5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67.1</b>     | <b>3.1</b>              | <b>46.8</b>      | <b>1.2</b>              | <b>45.4</b>      | <b>1.9</b>     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67.8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        | 49.0   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| 45.0             | 2.0           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64.1            | 2.6                     | 36.1             | 0.9                     | 47.1             | 1.8             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65.7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   | 46.5   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| 44.0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68.5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   | 47.0   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| 46.8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    |
| 100만원 미만     | 100.0        | 45.0            | 1.4                     | 21.4             | 0.5                     | 33.9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    |
| 100~2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56.8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        | 33.6             | 0.7                     | 40.2             | 1.4                     |
| 200~3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69.2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   | 48.0    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     | 46.9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    |
| 300~4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73.6            | 3.6                     | 54.1             | 1.4                     | 48.4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        |
| 400~5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81.0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    | 62.7             | 1.6                     | 53.4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        |
| 500~600만원 미만 | 100.0        | 83.1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      | 68.7             | 1.9                     | 52.4             | 2.9                     |
| 600만원 이상     | 100.0        | 83.6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      | 69.7             | 2.1                     | 52.9             | 3.0                     |

### 39.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

**해외여행 경험자는 17.2%, 주된 목적은 「관광」**

- 지난 1년(2012. 5. 11.~2013. 5. 10.) 동안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17.2%로 2011년 15.9%보다 1.3%p 증가
  - 도시지역 거주자의 해외여행 비율(18.2%)이 농어촌지역 거주자(12.6%)보다 많았고, 성별로는 남자(17.4%)와 여자(17.1%)가 비슷한 수준임
  - 연령별로는 30대의 해외여행 비율(21.5%)이 가장 높았고, 다음은 20대(20.6%), 40대(18.9%) 순임
- 여행목적별로는 「관광」 77.1%, 「업무」 17.3%, 「가사」 10.8% 순이며, 2011년에 비해 「관광」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, 「업무」, 「가사」 등의 비율은 감소함
  - 「관광」 다음으로 남자는 「업무」, 여자는 「가사」 목적의 여행이 많았음
  - 연령별로는 「관광」을 제외하면 10대는 「교육」, 20대~50대는 「업무」, 60세 이상은 「가족·친지방문 등」 목적의 해외여행 비중이 높았음

<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(복수응답) >

(단위 : %, 회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해 외<br>여행자  | 관광          | 여행자<br>1인당<br>여행횟수 | 가사          | 여행자<br>1인당<br>여행횟수 | 업무          | 여행자<br>1인당<br>여행횟수 | 교육         | 여행자<br>1인당<br>여행횟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15.9        | 72.1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12.9        | 2.2                | 18.7        | 2.7                | 6.9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17.2</b> | <b>77.1</b> | <b>1.5</b>         | <b>10.8</b> | <b>2.1</b>         | <b>17.3</b> | <b>2.6</b>         | <b>5.2</b> | <b>1.3</b>        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18.2        | 76.9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10.8        | 2.1                | 17.9        | 2.6                | 5.1        | 1.3        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12.6        | 78.7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11.0        | 1.9                | 13.0        | 2.1                | 5.6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17.4        | 70.2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9.6         | 2.2                | 26.5        | 2.7                | 5.4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17.1        | 84.0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12.0        | 1.9                | 8.2         | 2.1                | 5.0        | 1.2                |
| 13~19세       | 100.0        | 10.1        | 76.6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14.2        | 3.4                | 0.4         | 1.2                | 17.9       | 1.3                |
| 20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20.6        | 77.4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10.0        | 1.9                | 12.4        | 2.2                | 11.6       | 1.2        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21.5        | 73.1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 9.6         | 2.0                | 25.5        | 2.3                | 3.8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18.9        | 70.5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11.9        | 2.2                | 26.9        | 2.9                | 2.5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18.8        | 81.8        | 1.5                | 9.3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| 14.2        | 2.6                | 2.6        | 1.4        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11.5        | 88.0        | 1.6                | 12.7        | 1.8                | 6.2         | 2.4                | 0.8        | 1.2                |

## IV. 소득과 소비

### 40. 소득 만족도 (19세 이상)

**본인 소득에 「불만족」인 사람은 49.0%**

-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6.4%로 2011년 72.3%보다 4.1%p 증가
  - 성별로는 남자 88.5%, 여자 64.9%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연령별로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, 40대가 84.0%로 가장 많고, 다음은 50대 81.4%, 30대 78.3% 순임
- 소득이 있는 사람 중, 본인의 소득에 「만족」하는 사람은 12.1%로 2011년 11.7%보다 0.4%p 증가한 반면, 「불만족」인 사람은 49.0%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임
  - 연령별로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,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「불만족」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특히, 50대와 60세 이상은 소득에 대한 「불만족」 비율이 50%를 넘고 있음

#### < 소득 만족도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| 계     | 소득 있음 | 소 계   | 만족   | 매우  | 약간   | 보통   | 불만족  | 약간   | 매우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1년  | 100.0 | 72.3  | 100.0 | 11.7 | 1.5 | 10.3 | 39.2 | 49.1 | 35.7 | 13.4 |
| 2013년  | 100.0 | 76.4  | 100.0 | 12.1 | 1.5 | 10.5 | 39.0 | 49.0 | 34.8 | 14.1 |
| 남 자    | 100.0 | 88.5  | 100.0 | 12.2 | 1.5 | 10.7 | 39.0 | 48.7 | 34.6 | 14.1 |
| 여 자    | 100.0 | 64.9  | 100.0 | 11.8 | 1.5 | 10.3 | 38.9 | 49.2 | 35.2 | 14.1 |
| 19~29세 | 100.0 | 61.7  | 100.0 | 12.3 | 1.7 | 10.6 | 43.6 | 44.1 | 32.6 | 11.5 |
| 30~39세 | 100.0 | 78.3  | 100.0 | 14.1 | 1.3 | 12.8 | 41.7 | 44.2 | 31.1 | 13.1 |
| 40~49세 | 100.0 | 84.0  | 100.0 | 14.0 | 1.8 | 12.2 | 38.6 | 47.3 | 33.3 | 14.0 |
| 50~59세 | 100.0 | 81.4  | 100.0 | 11.4 | 1.5 | 9.9  | 37.8 | 50.8 | 36.2 | 14.6 |
| 60세 이상 | 100.0 | 74.7  | 100.0 | 8.5  | 1.4 | 7.1  | 34.7 | 56.8 | 40.4 | 16.4 |

## 41. 소득과 부채의 변화 (19세 이상 가구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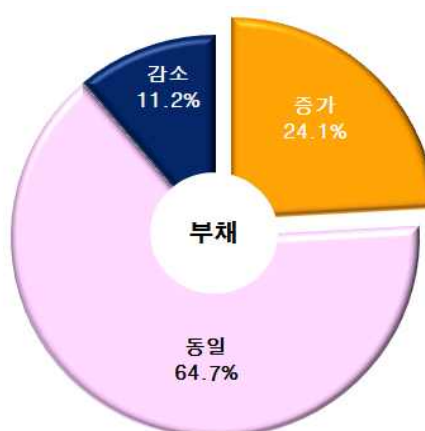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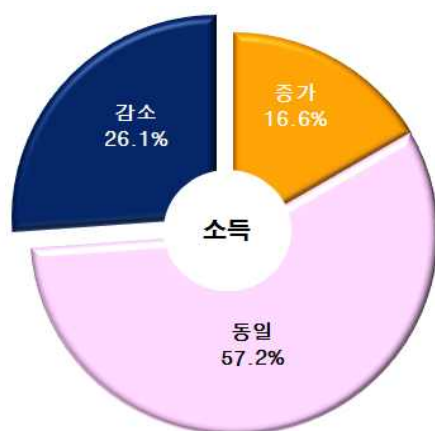
**전년보다 가구소득 감소는 26.1%, 가구부채 증가는 24.1%**

■ 1년전 보다 가구소득이 증가(16.6%)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감소(26.1%)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○ 연령별로는 50대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제일 높음

■ 1년전 보다 가구부채가 감소(11.2%)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증가(24.1%)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○ 연령별로는 30대 가구주의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비율이 제일 높음



< 소득과 부채의 변화<sup>1)</sup> (19세 이상 가구주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소득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부채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증가          | 동일          | 감소          |              | 증가          | 동일          | 감소          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18.1        | 56.7        | 25.2        | 100.0        | 27.3        | 61.9        | 10.8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16.6</b> | <b>57.2</b> | <b>26.1</b> | <b>100.0</b> | <b>24.1</b> | <b>64.7</b> | <b>11.2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100.0        | 17.4        | 56.4        | 26.1        | 100.0        | 25.2        | 63.1        | 11.7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100.0        | 12.8        | 61.0        | 26.2        | 100.0        | 19.0        | 72.1        | 8.9 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18.5        | 55.7        | 25.8        | 100.0        | 26.4        | 61.6        | 12.0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10.9        | 61.8        | 27.2        | 100.0        | 17.2        | 73.8        | 9.0         |
| 19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28.0        | 55.6        | 16.4        | 100.0        | 27.9        | 63.5        | 8.6 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32.1        | 48.4        | 19.5        | 100.0        | 34.7        | 50.9        | 14.5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21.8        | 52.7        | 25.5        | 100.0        | 32.4        | 53.3        | 14.3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12.7        | 55.6        | 31.7        | 100.0        | 25.1        | 62.5        | 12.4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4.5         | 67.4        | 28.1        | 100.0        | 9.9         | 83.5        | 6.6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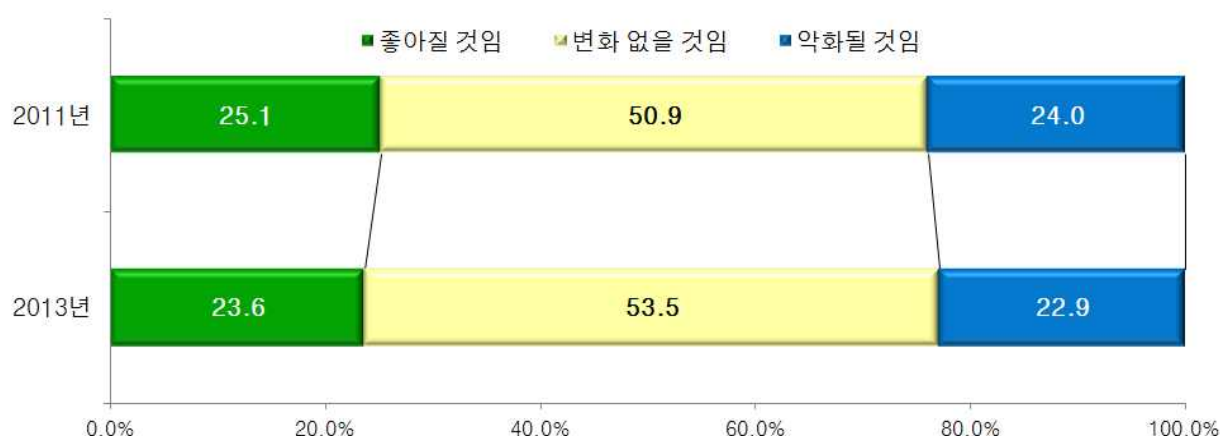
주 : 1) 1년전과 비교하여

## 42.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(19세 이상 가구주)

**가구주의 23.6%가 내년에는 가구재정이 더 「좋아질 것」으로 생각**

■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「좋아질 것」으로 생각하는 가구주는 23.6%, 「악화될 것」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22.9%로 나타남

-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, 성별로는 남자 가구주가 여자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「좋아질 것」으로 생각함
-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「악화될 것」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


<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(19세 이상 가구주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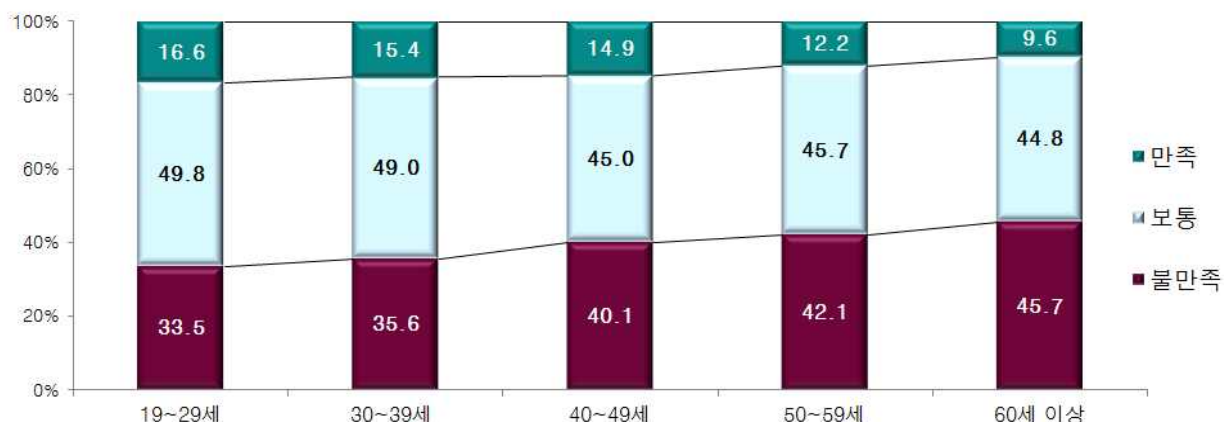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좋아질 것 임 | 변 하 없음 것 임 |      | 악화될 것 임 | 악화될 것 임 |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크게         | 약간   |         | 약간      | 크게   |     |
| 2011년    | 100.0 | 25.1    | 1.8        | 23.3 | 50.9    | 24.0    | 20.4 | 3.6 |
| 2013년    | 100.0 | 23.6    | 1.6        | 22.0 | 53.5    | 22.9    | 19.4 | 3.6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24.6    | 1.7        | 23.0 | 52.0    | 23.4    | 19.5 | 3.9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18.8    | 1.4        | 17.4 | 60.2    | 20.9    | 18.8 | 2.1 |
| 남 자      | 100.0 | 25.4    | 1.7        | 23.7 | 51.7    | 23.0    | 19.4 | 3.5 |
| 여 자      | 100.0 | 18.3    | 1.4        | 16.9 | 58.8    | 22.9    | 19.2 | 3.7 |
| 19~29세   | 100.0 | 39.3    | 3.3        | 36.0 | 47.6    | 13.1    | 11.4 | 1.6 |
| 30~39세   | 100.0 | 37.8    | 3.1        | 34.7 | 44.9    | 17.3    | 14.6 | 2.7 |
| 40~49세   | 100.0 | 30.1    | 2.3        | 27.8 | 47.7    | 22.2    | 18.1 | 4.1 |
| 50~59세   | 100.0 | 22.7    | 1.1        | 21.6 | 52.6    | 24.7    | 20.3 | 4.4 |
| 60세 이상   | 100.0 | 8.0     | 0.4        | 7.7  | 64.7    | 27.2    | 23.9 | 3.4 |

### 43. 소비생활 만족도 (19세 이상)

현재의 소비생활에 「만족」 하는 사람은 13.6%

- 19세 이상 인구 중 의식주,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「만족」 하는 사람의 비율은 13.6%로 2011년 12.7%보다 0.9%p 증가
  -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,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임
  - 연령별 소비생활의 만족도를 보면,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


< 소비생활 만족도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  | 계     | 만족   | 매우  | 약간   | 보통   | 불만족  | 약간   | 매우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1년    | 100.0 | 12.7 | 1.6 | 11.1 | 46.8 | 40.5 | 30.3 | 10.1 |
| 2013년    | 100.0 | 13.6 | 2.0 | 11.6 | 46.7 | 39.6 | 29.9 | 9.7  |
| 도 시(동 부) | 100.0 | 13.9 | 2.0 | 11.9 | 46.4 | 39.7 | 29.6 | 10.1 |
| 농어촌(읍면부) | 100.0 | 12.3 | 1.8 | 10.4 | 48.4 | 39.3 | 31.3 | 8.0  |
| 남 자      | 100.0 | 13.4 | 2.1 | 11.3 | 47.7 | 38.9 | 29.2 | 9.7  |
| 여 자      | 100.0 | 13.9 | 1.9 | 12.0 | 45.8 | 40.3 | 30.6 | 9.7  |
| 19~29세   | 100.0 | 16.6 | 3.3 | 13.4 | 49.8 | 33.5 | 26.4 | 7.2  |
| 30~39세   | 100.0 | 15.4 | 1.8 | 13.5 | 49.0 | 35.6 | 27.3 | 8.3  |
| 40~49세   | 100.0 | 14.9 | 1.8 | 13.1 | 45.0 | 40.1 | 29.5 | 10.6 |
| 50~59세   | 100.0 | 12.2 | 1.6 | 10.6 | 45.7 | 42.1 | 31.3 | 10.8 |
| 60세 이상   | 100.0 | 9.6  | 1.5 | 8.1  | 44.8 | 45.7 | 34.5 | 11.2 |

#### 44.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(19세 이상 가구주)

#####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「외식비」를 먼저 줄여

-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,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는 「외식비」, 「식료품비」, 「의류비」, 「연료비」 순으로 나타남
- 도시지역과 남자는 「외식비」, 농어촌지역은 「연료비」, 여자는 「식료품비」 지출을 제일 먼저 줄일 것이라고 응답함
- 소득수준별로 보면, 소득이 낮을수록 「식료품비」와 「연료비」를, 소득이 높을수록 「외식비」, 「문화여가비」, 「의류비」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응답함



##### <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(19세 이상 가구주, 복수응답)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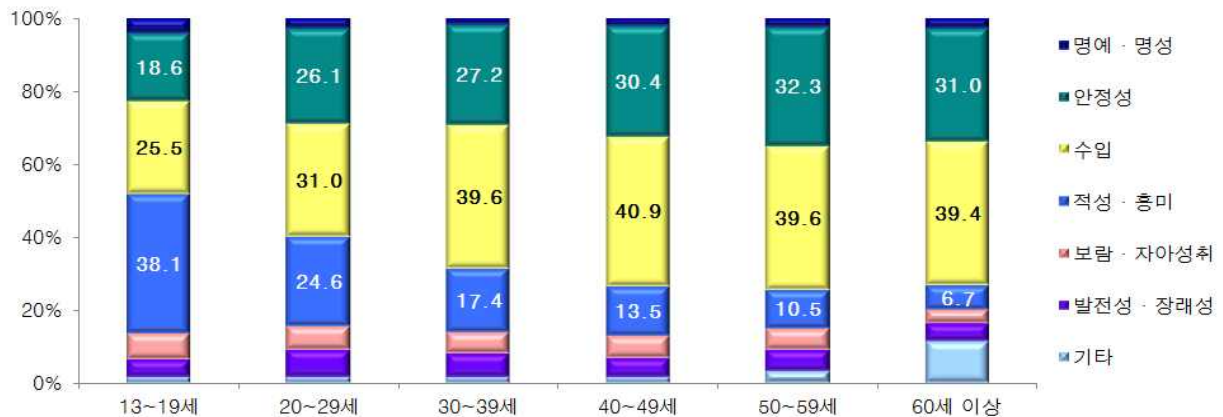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| 식료품비        | 외식비         | 의류비         | 교육비        | 교통·통신비      | 문화여가비       | 보건의료비      | 연료비         | 경조사비        | 기타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36.5        | 45.3        | 25.1        | 10.5       | 22.3        | 28.4        | 7.3        | 25.8        | 10.5        | 0.8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36.9</b> | <b>46.7</b> | <b>28.5</b> | <b>8.6</b> | <b>19.0</b> | <b>25.6</b> | <b>6.0</b> | <b>27.3</b> | <b>12.1</b> | <b>0.5</b> |
| 도 시(동 부)     | 37.7        | 49.8        | 29.8        | 9.3        | 18.9        | 27.8        | 5.6        | 24.9        | 11.8        | 0.5        |
| 농어촌(읍면부)     | 32.9        | 32.6        | 22.7        | 5.3        | 19.6        | 15.8        | 8.2        | 38.1        | 13.4        | 0.7        |
| 남 자          | 34.8        | 50.4        | 27.4        | 9.8        | 21.7        | 27.9        | 5.4        | 24.9        | 13.1        | 0.5        |
| 여 자          | 43.2        | 35.7        | 31.8        | 5.0        | 10.9        | 18.9        | 7.8        | 34.2        | 9.4         | 0.6        |
| 100만원 미만     | 47.6        | 23.5        | 22.0        | 2.5        | 10.0        | 11.6        | 10.4       | 41.5        | 11.1        | 1.1        |
| 100~200만원 미만 | 39.6        | 40.9        | 27.7        | 6.5        | 18.9        | 20.0        | 6.9        | 32.0        | 12.8        | 0.5        |
| 200~300만원 미만 | 36.0        | 52.0        | 29.0        | 9.4        | 23.0        | 27.3        | 4.1        | 23.8        | 11.8        | 0.3        |
| 300~400만원 미만 | 31.3        | 58.8        | 30.7        | 13.3       | 23.2        | 34.9        | 4.1        | 20.2        | 11.8        | 0.4        |
| 400~500만원 미만 | 30.2        | 62.2        | 31.5        | 14.1       | 22.1        | 36.7        | 3.8        | 15.7        | 11.8        | 0.1        |
| 500~600만원 미만 | 25.4        | 66.7        | 36.3        | 13.4       | 24.4        | 39.3        | 3.0        | 14.9        | 13.0        | 0.2        |
| 600만원 이상     | 21.4        | 70.6        | 38.4        | 13.9       | 21.0        | 45.1        | 3.2        | 11.5        | 15.0        | 0.7        |

## V. 노동

### 45. 직업 선택 요인

직업 선택은 「수입」, 「안정성」, 「적성·흥미」 순으로

-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「수입(37.1%)」, 「안정성(28.4%)」, 「적성·흥미(16.6%)」의 순으로 나타났음
  - 연령별로 보면, 10대의 경우는 직업 선택시 「적성·흥미」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, 20대 이후부터는 「수입」을 주된 직업 선택 요인으로 생각함



< 직업 선택 요인 >

(단위 : %)

|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명예성        | 안정성         | 수입          | 적성·흥미       | 보람·자아성취    | 발전성·장래성    | 기타 <sup>1)</sup>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11년        | 100.0        | 2.9        | 29.2        | 38.3        | 14.1        | 5.5        | 6.0        | 3.9              |
| <b>2013년</b> | <b>100.0</b> | <b>2.7</b> | <b>28.4</b> | <b>37.1</b> | <b>16.6</b> | <b>5.6</b> | <b>5.8</b> | <b>3.9</b>       |
| 남자           | 100.0        | 3.6        | 28.9        | 37.9        | 15.0        | 5.0        | 6.9        | 2.8              |
| 여자           | 100.0        | 1.8        | 28.0        | 36.2        | 18.1        | 6.2        | 4.7        | 5.0              |
| 13~19세       | 100.0        | 4.2        | 18.6        | 25.5        | 38.1        | 6.9        | 5.1        | 1.6              |
| 20~29세       | 100.0        | 2.8        | 26.1        | 31.0        | 24.6        | 6.2        | 7.6        | 1.6              |
| 30~39세       | 100.0        | 2.0        | 27.2        | 39.6        | 17.4        | 5.6        | 6.4        | 1.8              |
| 40~49세       | 100.0        | 2.3        | 30.4        | 40.9        | 13.5        | 6.1        | 5.2        | 1.7              |
| 50~59세       | 100.0        | 2.7        | 32.3        | 39.6        | 10.5        | 5.7        | 5.8        | 3.4              |
| 60세 이상       | 100.0        | 2.9        | 31.0        | 39.4        | 6.7         | 3.8        | 4.8        | 11.4             |
| 임금근로자        | 100.0        | 2.5        | 30.3        | 39.3        | 14.5        | 5.8        | 6.1        | 1.6              |
| 고용주          | 100.0        | 3.4        | 28.5        | 39.2        | 13.0        | 5.7        | 8.9        | 1.4              |
| 자영자          | 100.0        | 2.3        | 28.4        | 42.6        | 12.1        | 5.1        | 6.0        | 3.5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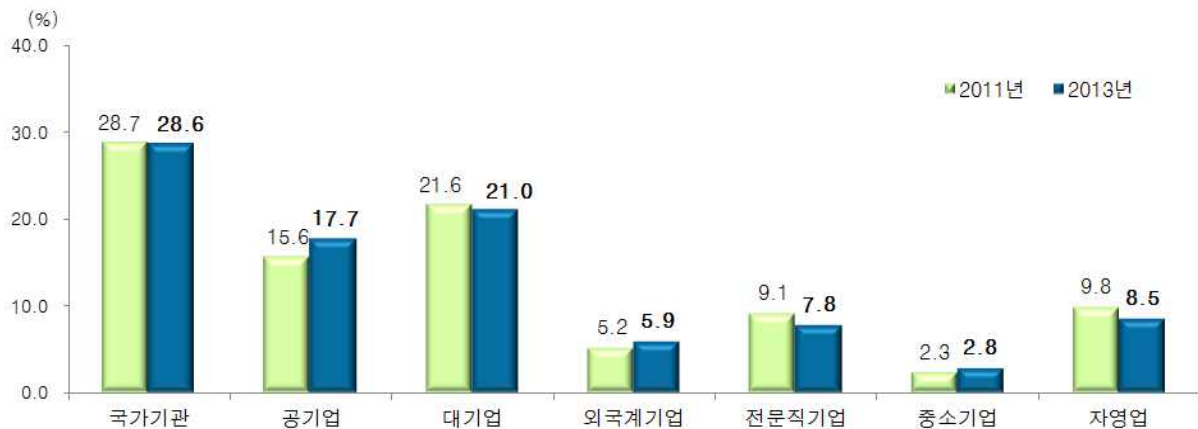
주 : 1) 「모르겠음」 포함

## 46.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(13~29세)

**청년(13~29세)중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「국가기관(28.6%)」**

■ 13~29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「국가기관(28.6%)」이며, 다음은 「대기업(21.0%)」, 「공기업(공사, 공단)(17.7%)」 순으로 나타남

- 성별로 보면, 남녀 모두 「국가기관」, 「대기업」, 「공기업(공사, 공단)」 순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음
- 연령별로 보면 「국가기관」 다음으로, 13~24세는 「대기업」을 원하는 한편, 25~29세는 「공기업(공사·공단)」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음



### <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(13~29세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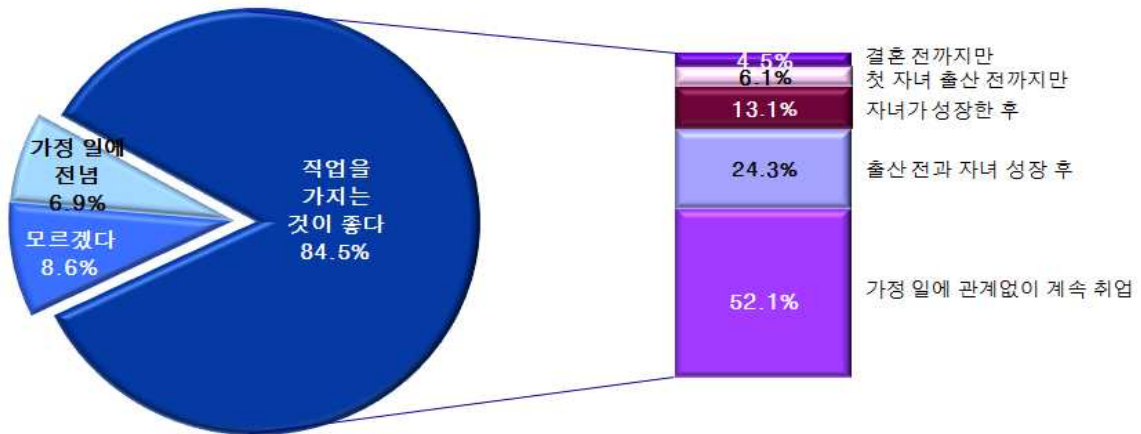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| 계     | 국가기관 | 공기업(공사) | 대기업  | 벤처기업 | 외국계기업 | 전문직기업 | 중소기업 | 해외취업 | 자영업  | 기타  |
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2011년  | 100.0 | 28.7 | 15.6    | 21.6 | 3.0  | 5.2   | 9.1   | 2.3  | 2.8  | 9.8  | 1.9 |
| 2013년  | 100.0 | 28.6 | 17.7    | 21.0 | 2.6  | 5.9   | 7.8   | 2.8  | 2.7  | 8.5  | 2.3 |
| 남자     | 100.0 | 26.1 | 18.3    | 24.4 | 3.3  | 4.6   | 6.5   | 3.3  | 2.3  | 9.1  | 2.0 |
| 여자     | 100.0 | 31.3 | 17.1    | 17.4 | 1.9  | 7.1   | 9.2   | 2.3  | 3.2  | 7.9  | 2.6 |
| 13~18세 | 100.0 | 29.7 | 12.7    | 24.2 | 3.2  | 4.8   | 9.8   | 2.7  | 2.8  | 6.5  | 3.6 |
| 19~24세 | 100.0 | 27.4 | 18.4    | 19.8 | 2.5  | 7.3   | 7.1   | 3.5  | 3.2  | 8.8  | 2.1 |
| 25~29세 | 100.0 | 28.7 | 22.9    | 18.4 | 2.1  | 5.6   | 6.3   | 2.2  | 2.2  | 10.8 | 1.0 |

## 47.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

**직업을 가질 경우, 가정 일에 관계없이 여성취업에 52.1%가 찬성**

- 여성취업에 대해서 「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」라는 견해는 84.5%, 「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」는 6.9% 불과함
- 직업을 가질 경우,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「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」이 52.1%로 절반 이상을 차지
-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「육아부담(46.6%)」이었고, 다음은 「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(20.8%)」, 「불평등한 근로여건(10.0%)」 순이었음



<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>

(단위 : %)

|       | 계     |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| 소계    | 결혼 전까 | 첫 자녀 출산 전까 | 자녀 성장 후 |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| 가정 일에 관계없이 |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| 모르겠다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011년 | 100.0 | 84.3          | 100.0 | 4.7   | 7.1        | 14.1    | 23.5          | 50.6       | 8.0                | 7.8  |
| 2013년 | 100.0 | 84.5          | 100.0 | 4.5   | 6.1        | 13.1    | 24.3          | 52.1       | 6.9                | 8.6  |
| 남 자   | 100.0 | 81.2          | 100.0 | 5.1   | 7.0        | 13.4    | 23.4          | 51.1       | 7.9                | 10.8 |
| 여 자   | 100.0 | 87.7          | 100.0 | 3.9   | 5.3        | 12.7    | 25.0          | 53.0       | 5.9                | 6.4  |

< 여성취업 장애 요인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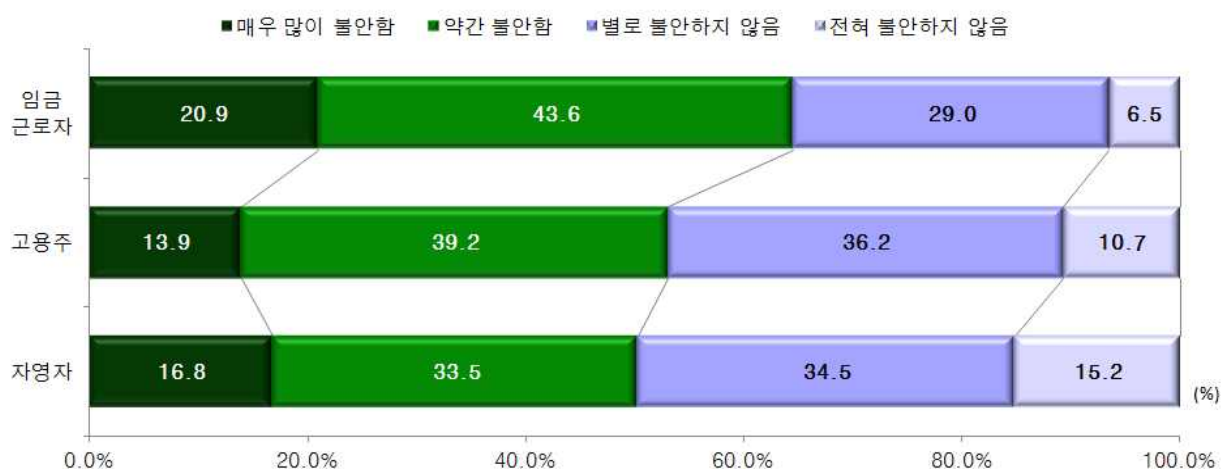
|       | 계     | 사 회 적 편견 관행 | 직업의식 감부 | 불평등한 근로여건 | 일에 대한 능력 부족 | 구인정보 구하기 어렵다 | 육 아 부 담 | 가 사 부 담 | 기 타 | 모르겠다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
| 2011년 | 100.0 | 21.4        | 4.3     | 10.9      | 1.9         | 2.1          | 46.4    | 6.2     | 0.1 | 6.9  |
| 2013년 | 100.0 | 20.8        | 4.8     | 10.0      | 1.6         | 1.8          | 46.6    | 6.0     | 0.0 | 8.3  |
| 남 자   | 100.0 | 22.0        | 6.7     | 9.0       | 2.0         | 1.4          | 43.5    | 5.3     | 0.0 | 10.1 |
| 여 자   | 100.0 | 19.6        | 3.0     | 10.9      | 1.3         | 2.2          | 49.6    | 6.7     | 0.1 | 6.6  |

## 48. 고용의 안정성 (19세 이상)

**직업(장)에 대해 59.8%가 불안감을 느끼며,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불안감을 느낌**

■ 취업자 중 평소 직장(직업)을 잃거나,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「느낀다」 라고 응답한 사람은 59.8%로 나타났으며, 여자(56.8%)보다는 남자가(61.9%) 더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, 임금근로자가 64.5%로 고용주(53.1%), 자영자(50.4%)보다 높음



< 고용의 안정성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불안함을 느낀다 | 불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|      | 별로   | 전혀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매우           | 약간   |      |      |
| 2011년  | 100.0           | 59.9     | 19.0         | 40.8 | 40.1 | 7.9  |
| 2013년  | 100.0           | 59.8     | 19.2         | 40.6 | 40.2 | 9.1  |
| 남 자    | 100.0           | 61.9     | 20.5         | 41.4 | 38.1 | 8.4  |
| 여 자    | 100.0           | 56.8     | 17.2         | 39.5 | 43.2 | 10.2 |
| 19~29세 | 100.0           | 61.9     | 18.2         | 43.7 | 38.1 | 7.5  |
| 30~39세 | 100.0           | 65.1     | 20.4         | 44.7 | 34.9 | 6.2  |
| 40~49세 | 100.0           | 62.6     | 20.3         | 42.3 | 37.4 | 7.4  |
| 50~59세 | 100.0           | 57.4     | 19.2         | 38.1 | 42.6 | 10.1 |
| 60세 이상 | 100.0           | 46.1     | 15.5         | 30.6 | 53.9 | 18.0 |
| 임금근로자  | 100.0           | 64.5     | 20.9         | 43.6 | 35.5 | 6.5  |
| 고 용 주  | 100.0           | 53.1     | 13.9         | 39.2 | 46.9 | 10.7 |
| 자 영 자  | 100.0           | 50.4     | 16.8         | 33.5 | 49.6 | 15.2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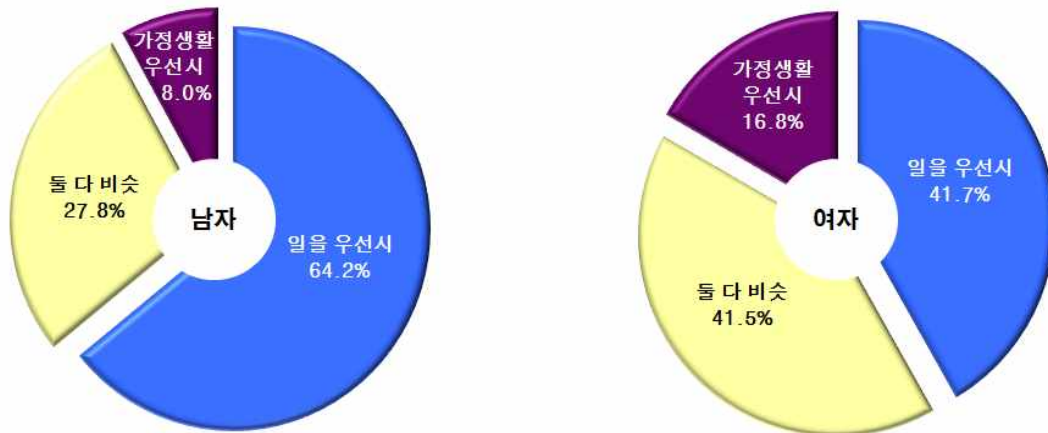
주 : 1)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

## 49.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(19세 이상)

일과 가정생활 중 「일을 우선시 한다(54.9%)」가 더 많아

■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를 조사한 결과, 「일을 우선시 한다」가 54.9%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이 「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」 33.4%, 「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」 11.6%임

■ 남자와 젊은 연령층(20대)이 고령층보다 「일을 우선시 한다」는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

<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(19세 이상) >

(단위 : %)

|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일을<br>우선시<br>한다 | 주로   | 대체로  | 둘 다<br>비슷하다 | 가정생활을<br>우선시<br>한다 | 대체로  | 주로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2011년  | 100.0           | 54.5            | 26.8 | 27.6 | 34.0        | 11.5               | 8.9  | 2.6 |
| 2013년  | 100.0           | 54.9            | 27.1 | 27.8 | 33.4        | 11.6               | 8.6  | 3.0 |
| 남 자    | 100.0           | 64.2            | 31.6 | 32.5 | 27.8        | 8.0                | 6.0  | 2.0 |
| 여 자    | 100.0           | 41.7            | 20.7 | 21.0 | 41.5        | 16.8               | 12.3 | 4.6 |
| 19~29세 | 100.0           | 63.1            | 31.4 | 31.7 | 26.2        | 10.6               | 7.6  | 3.1 |
| 30~39세 | 100.0           | 53.0            | 24.9 | 28.1 | 32.7        | 14.3               | 11.3 | 3.0 |
| 40~49세 | 100.0           | 53.8            | 27.4 | 26.5 | 35.7        | 10.5               | 8.0  | 2.4 |
| 50~59세 | 100.0           | 56.2            | 27.7 | 28.5 | 33.8        | 10.0               | 7.1  | 2.9 |
| 60세 이상 | 100.0           | 49.2            | 24.9 | 24.4 | 37.6        | 13.2               | 8.7  | 4.5 |

주 : 1)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

## 50. 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

「출산(전후) 휴가제(78.8%)」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,  
「가족 돌봄 휴직제(28.7%)」가 가장 낮아

■ 일·가정 양립 관련 제도 중 「출산휴가제(78.8%)」, 「육아휴직제(72.0%)」,  
「배우자출산휴가제(68.5%)」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음

○ 성별로 보면, 전반적으로 여자가 일·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도가 높았고,  
「배우자출산휴가제」의 인지도만 남자(69.4%)가 여자(67.2%)보다 높았음



### < 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>

(단위 : %)

|        | 계 <sup>1)</sup> | 출산(전후)휴가제 |      | 배우자출산휴가제 |      | 육아휴직제 |     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|      | 직장보육지원 |      | 가족돌봄 휴직제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알고 있다     | 모른다  | 알고 있다    | 모른다  | 알고 있다 | 모른다  | 알고 있다        | 모른다  | 알고 있다  | 모른다  | 알고 있다    | 모른다  |
| 2013년  | 100.0           | 78.8      | 21.2 | 68.5     | 31.5 | 72.0  | 28.0 | 36.7         | 63.3 | 52.8   | 47.2 | 28.7     | 71.3 |
| 남 자    | 100.0           | 78.2      | 21.8 | 69.4     | 30.6 | 70.5  | 29.5 | 34.7         | 65.3 | 51.8   | 48.2 | 27.2     | 72.8 |
| 여 자    | 100.0           | 79.8      | 20.2 | 67.2     | 32.8 | 74.1  | 25.9 | 39.6         | 60.4 | 54.3   | 45.7 | 30.9     | 69.1 |
| 13~19세 | 100.0           | 52.2      | 47.8 | 36.8     | 63.2 | 44.2  | 55.8 | 21.0         | 79.0 | 30.1   | 69.9 | 13.8     | 86.2 |
| 20~29세 | 100.0           | 78.3      | 21.7 | 65.5     | 34.5 | 70.9  | 29.1 | 34.0         | 66.0 | 48.1   | 51.9 | 26.4     | 73.6 |
| 30~39세 | 100.0           | 83.8      | 16.2 | 76.2     | 23.8 | 77.4  | 22.6 | 41.6         | 58.4 | 58.0   | 42.0 | 29.8     | 70.2 |
| 40~49세 | 100.0           | 81.3      | 18.7 | 73.2     | 26.8 | 76.2  | 23.8 | 40.2         | 59.8 | 58.6   | 41.4 | 33.6     | 66.4 |
| 50~59세 | 100.0           | 76.9      | 23.1 | 63.9     | 36.1 | 68.7  | 31.3 | 33.9         | 66.1 | 50.1   | 49.9 | 27.7     | 72.3 |
| 60세 이상 | 100.0           | 62.1      | 37.9 | 47.0     | 53.0 | 52.7  | 47.3 | 22.3         | 77.7 | 34.8   | 65.2 | 17.8     | 82.2 |

주 : 1)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